석사학위논문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에 관한 연구

2023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정 책 학 과

안 보 정 책 전 공

박 정 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동순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 Peninsula and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정 책 학 과

안 보 정 책 전 공

박 정 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동순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 Peninsula and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위 논문을 안보정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정 책 학 과

안 보 정 책 전 공

박 정 현

박정현의 안보정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 강 수 (인)

심 사 위 원 박 정 곤 (인)

심 사 위 원 박 동 순 (인)

국 문 초 록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안보정책전공
박 정 현

본 논문은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를 국내·외 안보환경(국제적 요소,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 국내적 요소)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향후 국내·외 안보환경을 전망해 보았을 때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제시이며, 냉전기의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영향을 받아 강화된 것에 대비하여 탈냉전 시기부터 신냉전 초기까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보환경과 복합적인 작용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던 현상에 기인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53년 6·25전쟁 이후부터 2021년까지의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화와 안보환경을 정리하였다.

시기별로 안보환경의 국제적 요소,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요소, 국내적 요소를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연대별로 각 요소별 주요 요인을 도출하여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규모와 기간변화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상기 제시한 안보환경의 3가지 요인을 분리, 통합하여 한미 연합연습·훈련

과 연관성을 분석해보고 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적 요소는 주요 안보이슈의 관련 지역이 한반도와 인접해 있을수록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와 국내 요소는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향후 안보환경을 전망했을 때 국제적 요소인 미·중 패권경쟁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인 북핵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은 국내적 요소인 국내 정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에게 또다시 딜레마적 상황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 탈냉전 시기의 북한의 핵 개발도 국내·외 안보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에게 딜레마적 상황을 강요하였다. 그 당시의 딜레마에서 한국의 선택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약화시키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대응방안을 선택하였다.

앞으로의 딜레마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고 친중국 성향의 북한은 핵 개발을 완성하고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투발 수단 또한 확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오는 딜레마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익한 결정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군사보안,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제약이 많았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북핵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은 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 반영하기 어려웠고 연구범위를 한정 짓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국익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연합연습, 연합훈련, 안보환경, 한미동맹, 미·중패권경쟁, 북핵 문제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4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 6

제 2 장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이해 ····· 9

제 1 절 연합연습·훈련의 개념과 필요성 ····· 9

제 2 절 연합연습·훈련의 변천과정 ····· 16

제 3 장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 ····· 31

제 1 절 국제적 요소 ····· 33

제 2 절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 ····· 42

제 3 절 국내적 요소 ····· 63

제 4 절 국내·외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관계 ····· 69

제 4 장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 ····· 72

제 1 절 한반도 안보환경의 전망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 예측 ···· 72

제 2 절 향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 ····· 75

제 5 장 결 론 ····· 79

참 고 문 헌 ····· 81

ABSTRACT ····· 86

표 목 차

〈표-1〉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 ····· 2
〈표-2〉 연구체계도 ····· 5
〈표-3〉 '연습'과 '훈련' 용어 정의 비교 ····· 10
〈표-4〉 한·미 '연합', '훈련' 용어정의 비교 ····· 11
〈표-5〉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 13
〈표-6〉 연합연습·훈련 유형 ····· 14
〈표-7〉 연합연습·훈련 체계 ····· 14
〈표-8〉 1980년대 팀 스프리트 훈련 현황 ····· 24
〈표-9〉 1990년대 RSOI 미군 참가병력 ····· 26
〈표-10〉 연합연습·훈련의 변천 ····· 30
〈표-11〉 탈냉전기 전·후 미국 국방비 변화 ····· 34
〈표-12〉 9·11테러 전·후 미국 국방비 변화 ····· 35
〈표-13〉 한미동맹 결속력 평가요소 ····· 38
〈표-14〉 냉전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 39
〈표-15〉 탈냉전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 40
〈표-16〉 신냉전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 41
〈표-17〉 국제적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 43
〈표-18〉 북한의 핵실험 경과 ····· 46
〈표-19〉 북한의 핵 개발 주요경과 ····· 46
〈표-20〉 확장억제 공약과 맞춤형 억제전략 ····· 48
〈표-21〉 1980년대 북한의 협상중단 요구사례 ····· 51
〈표-22〉 1994년 남북간 대화 제의 ····· 52
〈표-23〉 1990년대 북한의 협상중단 요구사례 ····· 54
〈표-24〉 2000년대 주요 남북회담 진행 경과 ····· 55
〈표-25〉 2010년대 주요 남북회담 진행 경과 ····· 57
〈표-26〉 동북아 및 한반도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 62
〈표-27〉 한국과 북한의 1인당소득 비교 ····· 66
〈표-28〉 국내적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 68

〈표-29〉 국내 · 외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 · 훈련 ····· 70

그 림 목 차

〈그림-1〉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의미 ····· 1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연일 전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관심이 없거나 아예 하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도 시위성 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그 위협이 한반도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인식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지속 시행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안보환경의 전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세계적인 빈곤 국가에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1]과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戰後 70여 년이라는 기간은 급격한 경제발전 외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며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약화시켰다. 2020년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쟁에 대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도 쉽게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6·25전쟁은 아직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의 상태임에도 국민이 전쟁의 위험과 훈련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군사력의 격차로 북한의 재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믿음과 약 70여 년 동안 북한의 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경험적 요소가 그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마치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이 종료된 후 미 본토의 위협에 대해 안심했던 것과 같이

1) 1945년 해방 당시 45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인들이 쏟은 근검과 절약정신을 일컫는 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해킹을 통한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으로 도발하고 있어 언제든 한국에도 9·11테러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들은 한 번의 도발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전쟁과 훈련에 대한 인식은 시급히 변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약 70년 전 스스로 국가안보를 지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에 이양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미연합사로 부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① 조건 #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조건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③ 조건 #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북한의 위협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하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중요성에 비해 유예 또는 취소되거나 규모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훈련을 등한시한다면 언젠가 위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훈련의 중요성은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연전연승하던 조선 해군은 4년 가까이 지루하게 끌어오던 명나라와 일본 간 강화협상 기간 동안 견내량(見乃梁)을 굳게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100척에도 미치지 못했던 전함을 180척까지 늘렸으며 활쏘기 등 군사 개인 훈련은 물론 함대의 기동훈련을 통해 수군의 전투력을 제고시켰다.[2)]

2) 김종대. (2016).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상지사 P&B : 가디언 pp. 263-264

그러나 원균(元均)과 일본군의 음모로 인해 1597년 이순신(李舜臣)은 원균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넘겨주고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이후 원균은 180척의 전함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등한시하고 제대로 된 전투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7월 칠천량(漆川梁) 전투에서 50척 규모의 일본군 기습에 당해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자신도 전사하는 참담한 패전의 주인공이 되었다.[3)]

유사한 사례는 베트남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협상'으로 공산당 독재가 수립된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으로 나누어졌다. 5년 후인 1959년 북베트남의 게릴라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 방지를 위해 1965년부터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자유 우방국들도 베트남에 참전하여 군대와 대폭적인 물량을 남베트남에 지원하였다.[4)]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포함한 연합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였으나 '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공)'의 게릴라 전술에 무력화되기 일쑤였다. 북베트남군은 미군의 첨단무기 앞에서도 이기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를 가지고 전장 환경에 맞게 훈련된 게릴라 전술로 무장하여 전투에 임했다. 이에 비해 남베트남은 정치지도자의 무능과 군대 지휘관들의 부패로 전쟁승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아무리 병력이 많고 고가의 첨단무기를 많이 도입하더라도 전쟁승리에 대한 의지와 그에 걸맞는 훈련, 전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한국은 1950년 6·25전쟁 초기의 패배를 교훈 삼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전 열악한 한국군의 전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재침에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군사동맹을 약속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6·25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력이 열세할 때 UNC와 주한미군의 지원下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할 수

3) 김종대. (2016).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상지사 P&B : 가디언 pp. 263-264

4) 신종태. (2016). "미국의 베트남전쟁 평가 및 교훈",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pp.73-103

있었다. 2022년 현시점에서도 한반도 전구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ROK-UK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가 행사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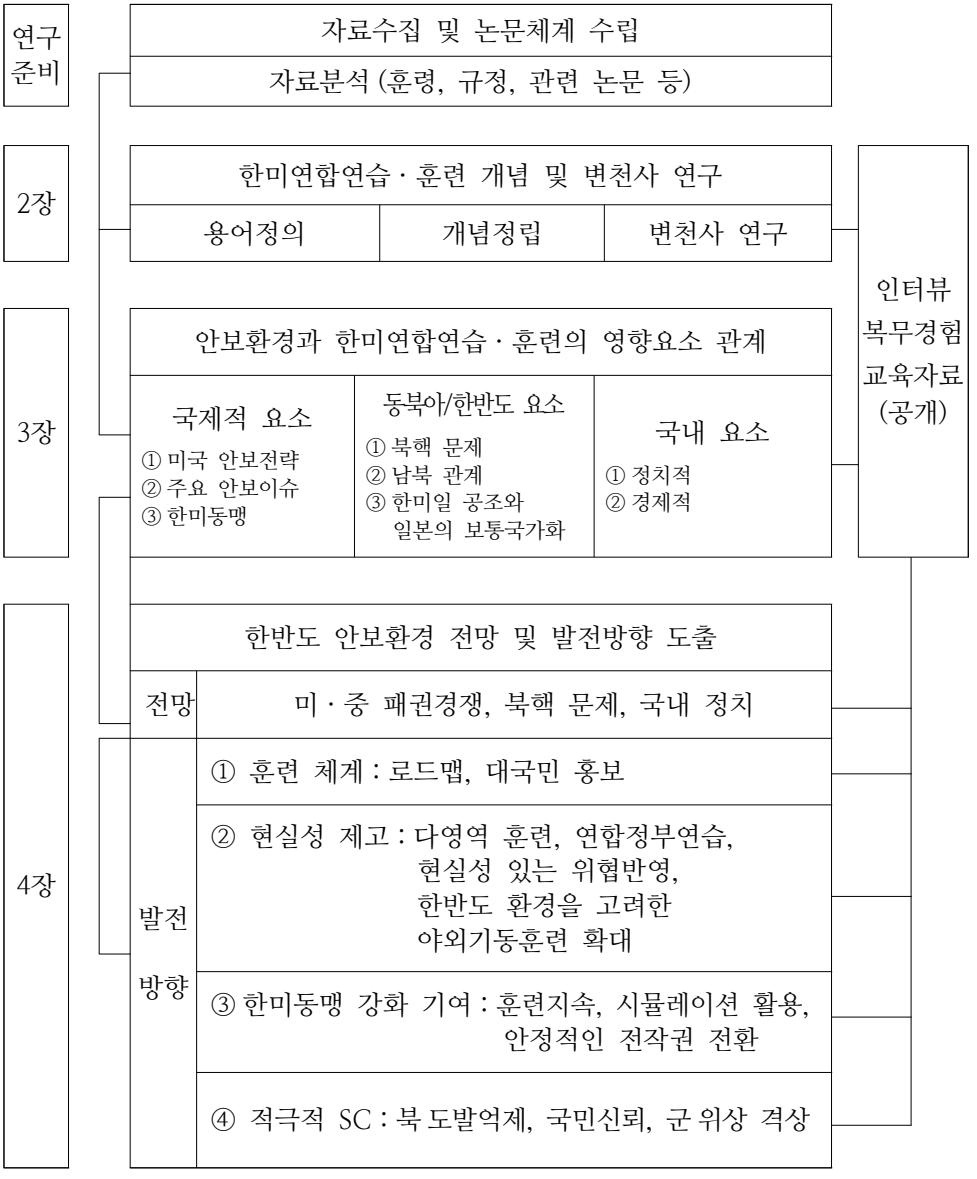
본고는 경험적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문헌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국방부의 교육훈련 관련 훈령, 합동참모본부(이하에서는 '합참')의 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관련 규정, 한미 연합연습에 관한 협약문서를 군사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하였다.

또한 국방대학교,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군사연습과 관련된 연구자료,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의 연합연습·훈련 관련 외부공개가 허용된 자료, 민간군사연구기관의 학술세미나 및 연구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참고하였다. 그 밖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내외 학술 논문, 관련 서적, 학술지 그리고 국내외 관련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특히, 최근 2010년 이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시행 실태 분석 간에는 연합연습·훈련 유경험자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자료들과, 연구자 본인의 합참 연합연습·훈련 분야 복무경험 등을 활용하였다.

위에 언급된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논문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제2장에서 개념 및 변천사 정립, 제3장에서 한미 연합연습·훈련과 국내·외 안보환경과 관계 분석, 제4장에서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세부 연구 체계도는 아래의 〈표 1-2〉과 같다.

〈표-2〉 연구체계도



연구범위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중심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부터 2021년까지 변천과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훈련 발전 방향은 2040년까지의 안보환경 전망을 통해 훈련 체계, 현실성 제고, 동맹 강화, SC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군사보안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통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시행간 문제점 등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제2장은 분석을 위한 배경지식으로 연합연습·훈련·훈련의 용어의 정의 및 개념, 연합연습·훈련의 태동과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국내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향후 안보환경 전망을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한미 연합 군사연습·훈련 발전방향을 제시한 선행연구로는 남기동(2018), 김정철(2019), 윤안국·장영호·이민우·오태호(2021) 등이 있다.

남기동(2018)[5]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훈련 시행을 위한 연습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연습체계 관련 교리 및 교범 그리고 지침서 발간 활성화, 둘째, 중앙집권적 연습체계 운영 및 지역 모의센터별 전담조직 배치, 셋째, 우리군 특성에 맞는 연습체계 발전 및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임무 필수과제 목록 개발, 넷째, 모의지원체계 지원 강화 및 모의모델 개발 관심경주이다. 해당 연구는 2018년 연합연습·훈련 시행결과를 중점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연습·훈련의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이전에 연구하였다는 시기적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성이 있으나 본 연구자와 같이 전작권 전환에 기여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철(2019)[6]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유도와 한반도 긴장완화에 있어 연합연습·훈련이 장애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미 연합연습·훈련 지속 시행

5) 남기동. (2019).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시행 발전방안 : 2018연합연습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6) 김정철. (2019).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발전방안.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연구논문

및 주변 국가와의 연합연습·훈련 시행 준비, 둘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구비 중점, 셋째,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내용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2.0,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국내 안보환경 위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자와 같이 한미 연합연습·훈련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체계확립, 훈련의 다양화, 전작권 전환에 기여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자료인 윤안국·장영호·이민우·오태호(2021)[7]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3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준비상태 검증 수단으로써의 기능, 둘째,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능력 검증으로써의 기능, 셋째, 한국군의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으로써의 기능이다. 발전 방향으로는 한국군 주도 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연합연습기획단 운영, DIME 제요소 통합, C4I체계 구축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연습범위와 연습기간, 참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연합연습·훈련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발전 방향인 한미 연합연습·훈련체계 확립, 훈련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연구자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외 발전 방향을 중점으로 한 선행연구는 아니지만 정상혁(2015)[8]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강도 변화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서 강도의 기준인 훈련규모, 훈련기간, 훈련수준(전략무기 참가여부, 훈련장소 선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요소에 의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강도(훈련규모, 훈련기간, 훈련수준 등) 기준을 활용하였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체계확립, 훈련의 다양

---

7) 윤안국, 장영호, 이민우, 오태호. (2021).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발전방향. 『겨울』. 37-4 통권 134호 pp. 71-107

8) 정상혁. (2015). 한미 연합연습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석사학위 논문

화, 전작권 전환 기여에 추가하여 현실성 제고, 시뮬레이션 활용방안, SC강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 분석되었던 다양하지 못한 연습·훈련 사례, 국내 안보환경만 분석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천사 연구와 국제, 동북아 및 한반도, 국내 요소로 구분하여 안보환경을 분석하였다.

제 2 장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이해

제 1 절 연합연습·훈련의 개념과 필요성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합연습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용어의 정의와 우리 군의 훈령, 규정 등을 통해 연합연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합연습·훈련의 개념 정의

연합연습이란, '연합'과 '연습'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먼저 '연합(聯合)' 이란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그 군대나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9]을 의미하며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연습(演習)'은 '훈련(訓練)'과 함께 다른 단어와 합성되어 연습개시, 연습명령, 훈련숙련도 등 일반명사[10]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합연습'의 경우 2개 이상의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 '연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측과 미측에서 각각 어떻게 '연습'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합동·연합작전 용어사전 10-2 (20. 7.)」에서 '연습'은 작전시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작전계획, 교리,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훈련'은 개인이나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 밖에「국어사전」과「육군 교육사 군사용어집」등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와 비교하면 〈표-3〉과 같다.

---

9)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0, 서울 : 합동참모본부)

10) 일반개념을 표시하는 명사,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된 특성을 나타낸다 (국립구어원 우리말샘)

〈표-3〉 '연습'과 '훈련' 용어 정의 비교

구 분	연 습 (Exercise)	훈 련 (Training)
국어사전[11]	• 연습(演習) : 실지로 하듯이 익힘 • 연습(練習) : 되풀이하여 익숙하게 하다.	•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演習) 함
합동 · 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12]	• 연습(演習) : **작전시행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작전계획, 교리,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	• 개인이나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
육군 교육사 군사용어집[13]	• 연습(演習) :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작전계획, 교리,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도록** 지휘통제본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훈련의 한 유형. 연습과 훈련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며 **훈련이 연습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美 합동교범 JP 1-02」에 '연습(Exercise)'은 '훈련 및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계획, 준비, 시행을 포함하는 모의 전시작전 또는 군사기동'[14]으로 정의되어 있고 '훈련(Training)'은 '특정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지식 및 태도를 획득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 및 적용된 연습'[15]으로 정의되

11) 엣센스 국어사전 (2016, 민중서림 : 민중서림 편집국)

12) 합동 ·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0, 서울 : 합동참모본부)

13) 야전교범 1-1 군사용어집 (2019(부분수정), 국군인쇄창 : 육군본부)

14) exercise : A military maneuver or simulated wartime operation involving plann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that i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training and evaluation.

어 있다. 한측과 미측의 정의를 대상과 목적 그리고 방법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표-4〉와 같다.

〈표-4〉 한·미 '연합', '훈련' 용어정의 비교

구 분		대상(~을)	목적(~을 위해)	방법(어떻게)
연습	한측	작전계획, 교리	작전시행절차 숙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훈련
	미측	계획, 준비, 시행	훈련 및 평가	모의 전시작전 또는 군사기동
훈련	한측	부여된 임무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군사지식과 기술 획득	행동으로 숙달
	미측	특정 과업	완료하기 위한 기술, 지식 및 태도 획득	교육 및 연습

* 출처 : 美「합동교범 JP 1-02」, 韓「합동·연합작전 용어사전 10-2」 참고

용어의 정의 상 누가(주체), 언제(시기), 어디서(장소)는 구분이 불명확하나, 무엇을(대상), 어떻게(방법, 수단), 왜(목적)에 대해서는 한측과 미측 모두 연습과 훈련을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다.

합참에서는 이러한 용어 정의의 차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문서, 직책, 활동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연습'과 '훈련'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영한 번역시에도 'Exercise'는 '연습'으로 'Training'은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22 UFS 연습에서는 기존 위기관리단계에서 사용해왔던 용어인 CMST(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 위기관리참모훈련)를 CMX(Crisis Management Exercise, 위기관리연습)로 변경하기도 하였다.[16]

위 내용을 바탕으로 '연합연습(Combined Excercise)'을 정의해 보면,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군대가 작전시행절차 숙달(훈련 및 평가)을 위해 작전계획(계획, 준비, 시행 포함)을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모의 전시작전(또는 군사기

15) training : Instruction and applied exercises for acquiring and retraining 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attitudes necessary to complete specific tasks.

16) 위기관리단계에서 19-1 동맹연습까지 CMX 용어를 사용, 19-2 CCPT부터 CMST로 변경/적용하였으며 '22 UFS 연습에서 다시 CMX로 변경하여 적용(2022. 8. 3. 연합사 연습처 연습과 공지)

동)으로 하는 훈련'으로 서술된다. '연합훈련(Combined Training)'은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군대가 군사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부여된 임무(특정 과업)을 교육 및 연습(행동으로 숙달)하는 것'으로 서술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에 이어서 우리 군의 훈령과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연합연습·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훈련 관련 최상위 법령인「국방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2700호('22. 8. 19.)」에는 "합참이 합동 및 연합연습·훈련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하위 항목에서는 "합참과 연합사가 주관하여 합동 및 연합연습·훈련을 기획, 계획, 시행, 조정 및 통제하며 각 군의 합동 및 연합 연습·훈련 관련 협조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 및 통제한다"[17].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합참이 관장하면서 연합사와 함께 주관하는 근거는 정전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 Combined Delegated Authority)'[18]에 기인한다. 그 배경은 1994년 12월 1일부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교환각서 합의'를 1994년 11월 30일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하달된 '전략지시 2호'에 의거 정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로 각각 지휘관계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원활한 전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전시 작전통제권들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지시 2호'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를 추가 명시하였다.

17) 국방부. (2022).『국방교육훈련 훈령』. 서울 : 국방부. p.4

18) 한미연합군사령부. (2020).『연합/합동작전 용어집(제1권)』. 국군인쇄창 : 한미연합군사령부. p.84

〈표-5〉 연합권한위임사항 (CODA)

① 전쟁억제, 연합위기관리	②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합동 교리발전	**④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연합정보관리	⑥ C4I 상호 운용성

* 출처 : 군사용어사전

위 연합권한위임사항 중 ④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에 의거 국방부 훈령에는 합참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연합연습의 주도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 이어 연합연습·훈련을 관장하는 합참 규정을 살펴보면 연합연습·훈련의 목표 및 중점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합참의「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규정(합참규정-351-011, 2022. 1. 1.)」에는 "연합연습·훈련의 목표는 연합전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하여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중점은 "첫째, 한미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와 작전계획 시행능력의 향상, 둘째, 연합 및 합동 작전 교리 숙달을 통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배양이며, 기타 연합연습·훈련 별 세부 목표 및 중점은 한미 간 합의하여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적용한다"[19]. 라고 명시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와 합참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연합연습·훈련의 목표와 중점을 보았을 때 '연합연습'은 연합전력의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투준비태세 및 작전계획 시행능력을 최대한 실제같이 하는 연습으로, '연합훈련'은 연합전력의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교리 숙달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두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간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두 용어의 구분을 위해 합참규정에 명시된 연합연습·훈련 유형을 기준으로 '연합지휘소훈련'과 '야외기동훈련' 형태로 구분하여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19) 합동참모본부. (2022).『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규정』. 서울 : 합동참모본부. pp. 18-19

〈표-6〉 연합연습·훈련 유형[20]

① **연합연습**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작전계획의 수행과 관련된 연합/합동작전 계획 및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모의체계를 운영하여 실시하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② **연합훈련**은 'Fight Tonight'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국내에서 연합으로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

* 출처 : 합참규정 351-011「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규정」(2022. 1. 1.)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한미 양국이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만큼 많은 준비 소요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체계'가 아래 〈표-7〉과 같이 정립되어 X-2년 전부터 소요-기획-실시-평가단계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7〉 연합연습·훈련 체계

① **소요단계** : X-2년에 부대 임무필수과제 및 참모부 지원과제 보완
② **기획단계** : X-1년에 연합훈련지침서(CTP : Combined Training Plan) 작성
③ **실시단계** : 연습개시 10 ~ 11개월 전부터 합동사태주기(JELC : Joint Event Life Cycle) 적용
④ **평가단계** : 임무필수과제 평가 및 보완과제 도출

* 출처 :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연습 수행체계 교육(공개)자료 참고

2) 연합연습·훈련의 필요성

연구배경과 연합연습·훈련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6·25 전쟁 직후 전쟁억제 요소 중 하나가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발생한 전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연습·훈련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제해 왔다.

20) 합동참모본부. (2022).『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규정』. 서울 : 합동참모본부. p. 19

이후 한국군은 자주국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한국군이 강해진 만큼 그 역할도 점차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고, 2022년 현재 큰 국력 격차와 군사력의 질적 우세 달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비대칭 전력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고려했을 때 한미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와 작전계획 수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단인 한미 연합작전태세 확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국가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할 필수요소이다.

더불어 한국은 6·25전쟁 발발로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었다. 이후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였지만 주권 국가로서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다시 전환해야 함은 당연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지휘관계가 재조정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합연습·훈련을 해온 것보다 더 정밀하고 강도 높은 연합연습·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 검증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연합연습·훈련의 주 파트너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제질서 유지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협력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기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6·25전쟁에서부터 연합작전 수행을 통해 대응해 왔다. 21세기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했을 때 신흥패권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북한 핵 문제 등 미국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협력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남북 분단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하겠지만 한국은「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동북아 열강들의 견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확보 등 단일 국가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유엔 전력제공국 등 제3국으로 그 능력이 확장된다면 통일을 달성하는데 국제적인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 확보, 한국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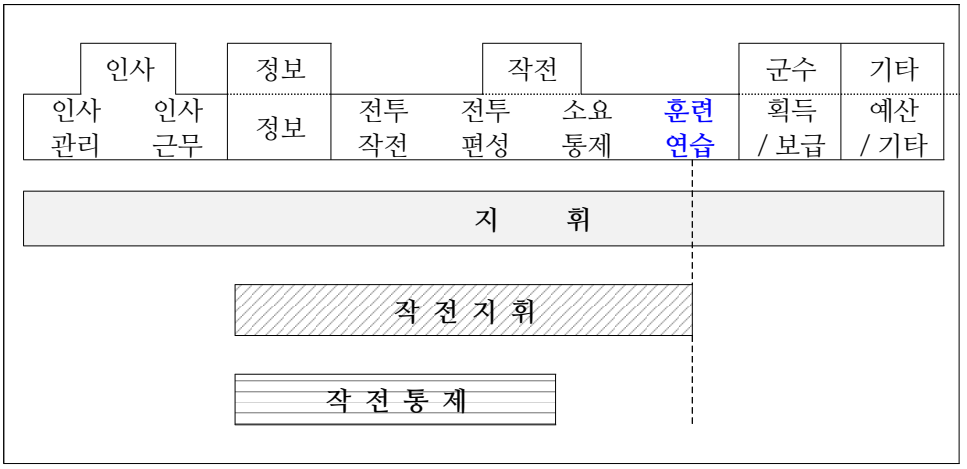
제 2 절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천과정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태동은 1953년 6·25전쟁 종료 후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 1954년 당시 한국은 작전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연합연습·훈련도 UNC 주도로 실시되었다. 2021년까지의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주체 변화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주체 변화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태동과 변천 과정을 연대별로 살펴보기 앞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주체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주체의 변화 근거가 1950년 한국의 작전지휘권 이양, 1994년의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현재 진행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1〉과 같이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의 의미를 시각화해 보았다.

〈그림-1〉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의미



* 출처: 군사용어사전 참고 작성

1953년 한국의 작전지휘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약 1년 뒤인 1954년 11월 17일에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이 체결됨에 따라 정전 후에도 UNC가 계속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21] 이를 근거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도쿄의 UNC 통제하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후 1957년 UNC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서울 UNC가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제하였다.[22]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이후,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연합사가 통제하였다. '제1차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 1호'에 의거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이 귀속되었기 때문이다.[23]

이후, 한·미는 1994년 12월 1일 '제24차 안보협의회(SCM)'[24] 합의에 따라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였으나[25]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주체는 변경

21)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2020). 외교·안보와 북한. 『2020 안보연구시리즈』. 제6권 1호. p.8

22) 이기범. (2019).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ISSUE BTIEF』. 2019-20호. pp.2-3

23)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1994).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수정』. 서울 :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록 "가"

24) 국방부, 제24차 SCM 공동성명(1992. 10. 8.)

25)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1994).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수정』. 서울 :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록 "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전시 작전통제권의 모든 권한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략지시 2호'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명시하여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행사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한미 연합연습·훈련 주체 변화의 과도기이다. 이유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SCM)'[26]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사령부(이후, 미래 연합사)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019년 8월에는 한미 연합검증단을 편성하여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하였다.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에서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완료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이 주관하고 통제하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2) 1950년대 : 한미 연합연습·훈련 태동기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1953년 6·25전쟁 종료 후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철수한 미군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같은 배경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태동하게 되었고 1954년 '포커스렌즈(Focus Lens) 지휘소연습'이 최초로 실시되었다.[27]

6·25전쟁 직후 주한미군은 약 32만 5천여명이 있었으나 1954년 2월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55년에는 8만 4천여 명, 1957년에는 7만여 명 정도만 남게 되었다.[28] 전쟁 후 북한의 재침략 위협은 상존하였음에도 한국군은 제대로된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당시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26) 국방부, 제46차 SCM 공동성명(2014. 10. 23.)

27) 1957년 서울에 유엔사가 설립되면서 서울에 위치한 유엔사 통제로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게 되었다. (정상혁, 2018, p.42)

28) 위 와동 p.41

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감소는 한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태동하였다.

최초 실시한 '포커스렌즈 연습'에서는 작전지휘권을 가진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55년 봄과 가을에는 최초의 대부대 기동훈련인 '1군사령부의 쌍방훈련'과 韓 5군단과 美 공군이 연합하여 실시한 '공지합동훈련'이 실시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3) 1960년대 : 한미 연합연습·훈련 시초기

1960년대에는 한국 단독의 최초 정부연습이 탄생하였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 배경은 추가적인 주한 미군의 감축을 앞두고 美 본토에서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68년 한국 단독의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정부연습)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태극연습의 배경은 북한의 특수부인 124군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사태 발생이 그 계기가 되었고 1968년 5월 11일 대통령 지시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하였다.[29]

다음 해인 1969년에는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에서 이름을 따 '태극연습'을 '을지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면전 대비 연습을 고려 정부 및 군사 지휘소연습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1968년 이후에는 전면전 대비 지휘소연습을 미측과 한측이 각각 따로 실시하게 되어 연 2회 실시하던 '포커스렌즈' 지휘소연습은 연 1회로 축소되고 한국 '을지연습'이 연 1회 추가되었다.[30]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1960년에는 韓 1군사령부, 美 1군단, 유도탄부대 등이 참가한 '이른새벽작전' 기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61년부터 1개 도(道)지역에서 韓 1개 대대와 美 1개 지역대가 실시하는 소규모 비정규전 연합훈련

29) 정상혁,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석사학위 논문, 2015, p.43

30) 위와 동. p.44 〈표 3-6〉 참조

인 '독수리연습'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다음 해인 1962년에는 한국군 3개 사단과 미국군, 터키군이 참가한 '우박작전'이라는 기동훈련이실시되었다.[31]

1960년 후반에는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주한 미군의 감축을 앞두고 있어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졌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美 본토의 병력을 한국으로 최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훈련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1969년에 실시한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이었다. 美 본토 병력인 82공정사단 2,500명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국의 여주까지 약 13,600km 거리를 31시간만에 이동하여 곧바로 작전지역에 투입되는 훈련이었다.[32]

4) 1970년대 :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정착기

1970년대에는 한미 지휘소연습이 통합되면서 지휘소연습의 체계가 정립되었다. 북한의 도발과 주한미군의 철수추진으로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시작되는 등 야외기동훈련(FTX : Field Training Exercise)이 대폭 강화된 시기이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는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각국이 별도의 지휘소연습을 하는 것은 일원화된 지휘체계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연습'의 통합을 제의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고[33] 1976년부터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연습'을 '을지포커스렌즈(Ulchi Focus Lens, UFL) 연습'으로 통합하여 시행하였다.[34]

---

31) 조성훈. (2008).『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231. 재인용

32) 1969. 3. 10. ~ 3. 20.까지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 참가병력은 미 제82공정사단 2,500명을 포함하여 주한미군과 한국군 등 7,500명이었고 병력 수송을 위해 C-130 및 C-141 수송기 77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의 지휘는 유엔군사령관 본스틸(Charles H. Bonestel)대장이었다. 남정욱(2002). p.72

33) 이후 1975년 9월 실무자회의, 1975년 11월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운용 합의각서가 교환되었고 1976년 2월 16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34) 을지 포커스 렌즈(UFL) 연습은 한국군의 을지연습과 유엔사의 포커스 렌즈 연습을 통합한 것으로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전략지시 제1호'에 의거 한미연합사령관에 작전지휘권이 귀속되고 군사분야 연습 주관 권한도 부여되면서 한미연합사 주관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진행하였다.

야외기동훈련은 1968년의 1·21사태 이후 1970년부터 '독수리 훈련'에 후방지역작전을 추가하였다. 1975년에는 '독수리 연습'을 'FE(Foal Eagle)'연습으로 명칭을 변경[35]하면서 훈련 장소를 2군 지역까지 확대하여 특전부대와 후방지역 부대 간 쌍방훈련을 실시하는 한·미 연합 비정규전 훈련으로 발전시켰다.

1971년에는 1969년 포커스 레티나 훈련에 이어 주한미군 7사단 철수와 관련하여 美 본토-오끼나와-한국을 잇는 공수훈련인 '프리덤 볼트훈련(Freedem Volt)'[36]이 실시되었다. 이는 미 82공정사단 504연대 2대대 공정대원 800여 명과 한국군 공수특전단 225명이 미 포드 공군기지에서 여주까지 약 13,000km를 30여 시간만에 이동하여 2천 피트 상공에서 낙하하는 훈련이었다.[37]

1975년 이후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 추진과 베트남 공산화의 영향에 따라 한국의 안보 상황은 또다시 불안해져 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안보 불안을 타계하고 한미 안보협력체계 강화 및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하여 1975년 '제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실제 병력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후 1978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대규모 FTX로 북한 남침에 대비하여 반격과 복귀까지 전반적으로 실시하였다. 최초 1976년 시작된 이후 매년 새로운 훈련이 추가되었다.

1973년 미측의 통합제의에 의해 연구단이 창설되었고 1976년 최초로 통합연습이 실시되었다. (장삼열 외 3명, 2013, p.171)

35) 韓 1특전여단과 美 7특전여단의 부대마크인 독수리와 조랑말을 통합하여 부여

36) 이정혁, "팀 스프리트와 미국의 군사전략"(서울 : 동녘, 1989), p.72

37) 1971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이번 훈련은 조지 블란차드 사단장 지휘아래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적의 공격에 즉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훈련장소는 오산 북쪽의 30만 평에 달하는 들파에서 실시되었고, C-141기 15대, CH-47 6대, C-46 10대가 동원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71~75)」(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29~32.

특히,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사건 도발 이후 1977년 팀스피리트 훈련 참가병력은 기존 약 46,000명에서 약 87,000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38] 그 이후 1978년에는 전체 훈련 규모는 20%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미군의 규모는 3배가 증가하였다. 1979년에도 전체 훈련규모는 50% 이상 증가하였다.[39]

훈련 규모뿐만 아니라 훈련의 범위도 1976년 '공수훈련 + 상륙훈련'의 결합, 1977년 '지상훈련' 추가, 1978년 이후 '육·해·공 합동훈련'으로 확대되었다. 전략무기 참가도 점차 증가하여 1976년 미드웨이 항공모함 참가 이후 다음 해부터는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랜스 미사일 포대와 B52 폭격기까지 참가하였다.

5) 1980년대 :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장기

1980년대에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는 시기였다. 1976년 이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통합되면서 규모는 증가하였고 다양한 훈련이 추가되었다.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정부연습과 통합으로 동원태세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군을 동원한 연습은 전면전 상황에 가까운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냉전기의 대결 양상과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연합연습·훈련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고 미군의 참가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40] 훈련의 종류, 훈련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훈련의 종류는 실제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훈련들을 추가하였다. 1982년에는 '등화관제 및 민방위 훈련', '전시 시설복구 훈련'이 추가되었고 1984년에는 '도하훈련', 1985년에는 '북한 테러에 대비한 훈련', 1986년에는 '차량통제훈련'과 '민간선박 동원훈련' 등이 추가되었다. 1987년부터는 북한

38) 오버도퍼는 팀스피리트 연습의 시행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Don Oberdofer, The Two Korea : A Contemporary History(New York : Basic Books, 2001), p.84.

39) 정상혁,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석사학위 논문, 2015, pp.50-51

40) UFL 미군 참가규모 변화 : 1978년 약1,500명, 1982년 약6,000명, 1990년 약 10,000명

의 서울올림픽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사 차원의 지휘소연습[41]이 추가되어 지휘소연습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가되었다.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의 미-소 군사대결 노선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42]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강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훈련 규모, 훈련 기간, 전략무기 참가, 훈련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강도였는지 실감할 수 있다.

훈련 규모 측면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는 참가병력이 4만 ~ 5만 수준이었던 반면 1981년에는 약 15만명[43],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1984년에는 2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44] 훈련기간에 있어서도 기존 10일 정도에서 1981년부터는 70~80일 (약 2달)로 늘어났으며, 전략무기는 거의 매년 항모와 폭격기가 동원되었다.

훈련 내용에 있어서도 강도 높은 훈련이라 할 수 있는 '공지전투' 개념을 적용한 '공중훈련', '화력시범훈련', '도하훈련' 등을 추가 실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적지종심지역에서 실시되는 비정규전 훈련 등을 비롯하여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화학전까지도 실시하게 되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훈련 장소도 휴전선 인근까지 기동하는 등 '특수전', '생화학전', '핵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아래 〈표-8〉을 보면 198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의 현황을 알 수 있다.

---

41) 1987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포커스 클리어(Focus Clear)연습이 최초로 실시되었다(정상혁, 2018, p.47)

42)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KAL기 테러 등

43) 이정혁(1989), p.68 ; p.84

44)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에 따르면 팀스피리트 훈련 규모를 확대한 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용이었다. 이로 인하여 진행되어 오던 1985년 남북 정상회담은 결련되게 된다. Don Overdorfer(1998), p.149

〈표-8〉 1980년대 팀 스프리트 훈련 현황[45]

년도	참가병력(미군)	기간	전략무기	주요 훈련내용
1980년	145,000(42,800)	16일	항모 미드웨이	상륙작전, 도하작전, 해군기동훈련, 출격훈련
1981년	156,000(56,700)	70일	7함대, B52편대	상륙작전, 도하작전,
1982년	161,600(61,600)	70일	7함대, B52편대, 항모 미드웨이	상륙작전, 도하작전, 화력시번, 항모기동
1983년	191,700(73,700)	75일	B52편대, 항모 미드웨이 · 엔터프라이즈	상륙작전, 도하작전, 화력시범, 기뢰전
1984년	207,150(59,850)	90일	B52편대, 항모 키티오크	상륙작전, 도하작전, 기뢰전, 전투기전투
1985년	209,000(62,000)	90일	B52편대, 항모 미드웨이	상륙작전, 도하작전, 기뢰전, 화학전
1986년	218,984	75일	B52편대, 항모 미드웨이	상륙작전, 공격작전, 해상작전
1987년	약 20만	90일	B52편대, 항모 레인저	상륙작전, 해상작전, 해상군수지원, 화학전
1988년		90일	폭격기, 항모	지 · 해 · 공작전, 대침투
1989년		90일	폭격기, 항모	지 · 해 · 공작전, 대침투

결론적으로 1980년대는 냉전기의 미 · 소 양극화 안보환경과 북한의 지속된 도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준비로 지휘소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은 모두 강하게 실시된 시기였다.

6) 1990년대 : 한미 연합연습 · 훈련의 조정기

45) 남정옥 (2002), p.626 / 이정혁(1989), p.69, 연구자 일부 재작성

1990년대는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탈냉전시기로 미국의 걸프전, 한국과 북한의 협력 증대 등 다채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조정되는 시기이다.

지휘소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1976년 이후 매년 실시해 왔으나 노태우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추진정책에 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1990 ~ 1993년)' 추진과 미국의 걸프전(Gulf War) 참전 준비로 1990년부터 1993년간 규모가 축소되어 시행되었다. 그중 1990년에는 정부연습을 한해 건너뛰기도 하였으며 1991년부터 1부는 한국 단독의 '을지연습'이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2부는 한미 연합의 포커스 렌즈 연습이 진행되었다.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의 통합으로 규모가 증가하였던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까지와 반대로 두 연습이 분리되고 미군의 걸프전 준비로 미측 자산의 참여도 줄어들면서는 연습 규모와 세부종류는 감소하게 되었다. 한미동맹과 훈련의 효율성 등을 고려 1994년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를 재통합하였지만 1980년대 보다 축소된 규모로 실시하였다.

연습 규모가 감소된 것은 지휘소연습뿐만 아니었다. 야외기동훈련은 규모 감소로 그치지 않았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의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핵사찰 수용을 고려하여 1992년 훈련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은닉과 비밀 핵 프로그램이 탄로 나면서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였다.

1993년 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였으나 그 규모와 기간은 축소하였다. 같은 해 북한은 NPT(Non 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팀스피리트 훈련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서'체결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에 합의하였다.[46] 그러나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으로 인한 연습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팀스피리트

46) 윤안국,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7년), pp.46 - 47

훈련을 수 개의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대규모 훈련이 사라진 것에 대체하여 1994년 단독으로 '전시증원(Reception Staging Onward Itegration, RSOI) 연습'을 CPX로 연합사에서 시작하였으며 다음 해인 1995년엔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Itegration)연습'을 모의기법에 의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으로 발전시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4,000 ~ 7,000명 수준을 증원하는데 불구하였고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졌다.

〈표-9〉 1990년대 RSOI 미군 참가병력[47]

구 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미군 참가병력	-	8,000명	-	7,000명	-	4,200명

이렇듯 팀스피리트 훈련이 폐지됨에 따라 대규모 FTX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사·군단급 자유기동훈련은 FE로 조정되었으며 군단급 FTX는 '호국훈련'에 통합되었다.[48]

결국 1990년대에는 탈냉전시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한국의 북한과의 협력추구 등으로 연합연습·훈련은 조정되었으며 북한에게 가장 큰 압박을 주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핵 협상의 카드로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가장 큰 규모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협상의 수단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7) 2000년대 :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기

2000년대는 중반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협력적 자주국방정책' 등을 통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구했던 시기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로 '저수준'으로 시행되었다.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 ~ 2002)」(2004)

48) 사단급 자유기동훈련은 1995 ~1996년, 군단급 자유기동훈련은 1997 ~ 2000년에 FE로 조정되었으며 군단급 FTX는 2001년 호국훈련에 통합됨

이후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49]함에 따라 한국의 연합연습·훈련 주도능력을 배양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0년대에도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휘소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강화할 수 없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에 따른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합연습·훈련 강도를 약화시킬 수도 없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연습의 규모는 유지하되[50] 수준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2008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新연합방위태세 준비 차원으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자유(Freedom)를 수호한다(Guardian)는 의미를 지닌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UFG) 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1994년 시작된 'RSOI 연습'이 정착되고 사·군단급 자유기동훈련이 'FE'으로 조정되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2002년 'RSOI연습'과 'FE'을 통합하여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2008년에는 지휘소연습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新연합방위태세 준비 차원으로 'RSOI/FE 연습'을 'KR[51]/FE 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도의 연합연습·훈련명칭 변경은 전작권 전환준비와 함께 전반기 'KR/FE연습', 후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체계를 정착시켰다.

8) 2010년대 :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새로운 모색기

2010년대에는 2018년 전반기까지,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KR/FE

49) 국방부, 제38차 SCM 공동성명(2006. 10. 20.)

50) 2000년대 UFL과 UFG 규모는 약 6~7만 5천명 수준을 유지

51) KR : Key Resolve

연습'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계속해서 정착되었다.

이후 전반기의 'KR/FE연습'은 2019년에 '동맹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후반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2019년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CCP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음에도 연합연습·훈련의 큰 강도 변화보다는 5.24조치[52]와 같은 대북제재와 북한의 군사도발과 WMD위협과 관련된 훈련의 수준만 일부 강화하였다.

2011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최초로 합참 주도로 'KR(Key Resolve)연습'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모의센터 준공, 합동연습·훈련체계 구축 등 시설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2017, 2018년에 다시 합참 주도의 연합연습이 이루어졌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8 평창올림픽' 준비로 국내정세가 어수선해 지면서 전작권전환 준비를 위한 추동력을 이어나가기 힘들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4·27 남북정상회담[53]',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을 고려하여 2018년 태극연습 시기조정, UFG 취소, 연합연습과 정부연습 분리 등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반기 FE연습을 종료시켰다. FE의 종료로 KR연습은 야외기동훈련과 연계하지 않고 시행하였고 명칭을 '동맹연습'으로 변경하였다. 종료된 FE는 '소부대연합훈련'으로 연중 시행토록 하였다. 후반기

---

52) 네이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68611&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5.24 조치 [한경 경제용어사전](검색일 : 2022. 10. 24.)

5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이전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반면 2018년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렸으며, 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641&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시사상식사전] (검색일 : 2022. 10. 24.)

UFG연습은 을지연습을 제외한 상태로 시행되었고[54] 명칭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변경하였다.

9) 2020년 ~ 2021년 :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새로운 도전기

2020년 2월부터 'COVID-19'의 확산이 심화되어 전반기 CCPT는 시행되지 않았다. 후반기 CCPT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실시되었으며 정부연습과 분리되었고 야외기동훈련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COVID-19사태는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전·후반기 모두 축소되었고 2020년 후반기와 동일하게 정부연습과 분리되고 야외기동훈련과 연계되지 않은 채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연습을 실시하였다. 그 중 후반기 CCPT는 미국 증원병력의 규모가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18년 KR/FE 이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야외기동훈련은 21년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2021년까지 한미 연합연습·훈련체계는 〈표-10〉과 같이 정리하였다.

54) 한·미 양국은 2019년 8월 연합검증단을 편성하여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하였다.

〈표-10〉 연합연습·훈련의 변천

<table>
<tr><th>구 분 \ 년 도</th><th></th><th>0 ~ 1년</th><th>2 ~ 3년</th><th>4 ~ 5년</th><th>6 ~ 7년</th><th>8 ~ 9년</th></tr>
<tr><td rowspan="2">1950년대
(태동기)</td><td>지휘소연습</td><td colspan="3"></td><td colspan="2">포커스렌즈연습('54)</td></tr>
<tr><td>야외기동훈련</td><td colspan="3">쌍방훈련→ (1군 사령부)</td><td>'55</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td><td colspan="3">공지합동훈련→ (韓 5군단, 美 공군)</td><td>'55</td></tr>
<tr><td rowspan="3">1960년대
(시초기)</td><td rowspan="2">지휘소연습</td><td colspan="5">포커스렌즈연습('54)</td></tr>
<tr><td colspan="4">한국 단독 정부연습 →</td><td>태극('68) →을지('69)</td></tr>
<tr><td>야외기동훈련</td><td></td><td colspan="4">독수리('61)</td></tr>
<tr><td></td><td>'60</td><td colspan="3">← 이른새벽작전 포커스 레티나 →</td><td>'69</td></tr>
<tr><td rowspan="4">1970년대
(정착기)</td><td rowspan="2">지휘소연습</td><td colspan="3">포커스렌즈연습('54) 통합→</td><td colspan="2" rowspan="2">UFL('76~'08)</td></tr>
<tr><td colspan="3">을지('68) 통합→</td></tr>
<tr><td rowspan="2">야외기동훈련</td><td colspan="3">독수리('61) / 명칭변경 →</td><td colspan="2">FE('76)</td></tr>
<tr><td></td><td>'71</td><td colspan="2">← 프리덤 볼트</td><td colspan="2">T/S('76~'94)</td></tr>
<tr><td rowspan="3">1980년대
(확장기)</td><td>지휘소연습</td><td colspan="6">UFL('76~'08)</td></tr>
<tr><td rowspan="2">야외기동훈련</td><td colspan="6">FE('76)</td></tr>
<tr><td colspan="6">T/S('76~'94)</td></tr>
<tr><td rowspan="3">1990년대
(조정기)</td><td rowspan="2">지휘소연습</td><td colspan="6">UFL('76~'08)</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RSOI ('94, T/S 대체)</td></tr>
<tr><td rowspan="2">야외기동훈련</td><td colspan="6">FE('76)</td></tr>
<tr><td colspan="3">T/S('76~'94)
*'92 미실시</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2000년대
(변화기)</td><td rowspan="2">지휘소연습</td><td colspan="5">UFL('76~'08) / 명칭변경 →</td><td>UFG('08)</td></tr>
<tr><td>RSOI</td><td colspan="3" rowspan="2">RSOI + FE 통합('02~'08)
/ 명칭변경 →</td><td rowspan="2">KR/FE ('08)</td></tr>
<tr><td>야외기동훈련</td><td>FE('76)</td></tr>
<tr><td rowspan="2">2010년대
(모색기)</td><td>KR/FE
(전반기)</td><td colspan="5">KR/FE('08~'18) 명칭변경 →
*'19 FE 중단, 소부대 연합훈련으로 연중 시행</td><td>동맹 연습</td></tr>
<tr><td>UFG
(후반기)</td><td colspan="5">UFG ('08~'18) 명칭변경 →
*'18 미실시</td><td>CCPT</td></tr>
<tr><td rowspan="2">2020년대
(도전기)</td><td>CCPT
(전반기)</td><td>CCPT
(시뮬레이션)</td><td colspan="5" rowspan="2">← 정부연습 분리, 야외기동훈련 미연계,
시뮬레이션 위주 실시</td></tr>
<tr><td>CCPT
(후반기)</td><td>CCPT
(시뮬레이션)</td></tr>
</table>

* 출처 : 윤안국, 장영호, 이민우, 오태호. (2021).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발전방향. 참조 재작성

제 3 장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

제 1 절 국제적 요소

국제적 요소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최강국이며 UN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시대별로 냉전기, 탈냉전기, 신냉전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1) 냉전기 (1950년 ~ 1989년)

냉전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국가의 팽창정책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전략을 구상하여 대비하였으며 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또는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지역에 대한 무력공격 억제, 둘째,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침략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셋째,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대한 분란의 방지 또는 분란 진압 지지, 넷째 자유세계의 제 국가들에게 국제해상 및 공중 그리고 우주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비행권 보장 등을 안보전략으로 구상하였다.[55] 즉 자유진영과 동맹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였다.

유럽지역의 냉전은 독일의 분단을 포함하여 가장 강한 군사동맹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56]와 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57]의 대결로 특징지어졌다.

---

55) 정호정. (2004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0-31

56) 1949년 소련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을 위해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이 발족시킨 기구
출처 : NAVER 지식백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시사상식사전] (검색일 : '22. 11. 10.)

57) 1955년 NATO에 대항하여 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이 만든 지역안보기구
출처 : NAVER 지식백과 『바르샤바조약기구』 [시사상식사전] (검색일 : '22. 11. 10.)

두 개의 안보동맹체제가 다른 지역의 여러 군사동맹에 비해 특별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 각 동맹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의 무기경쟁, 그 중 핵무기 개발 경쟁은 NATO와 WTO의 군비대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시기에 더 광범위하게 '핵전쟁'의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58)]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냉전'을 국제 냉전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무장이 가장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있다. 유럽 대륙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양측 군사동맹의 직접적인 대결체제는 막대한 파괴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군사 긴장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베를린을 두고 벌어진 1948년, 1949년의 '제1차 베를린 위기'와 10년 뒤 '제2차 베를린 (봉쇄) 위기'는 언제라도 미국과 소련이 핵을 비롯한 군사력 대결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59)] 1970년대에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면서 미·소 양극체제가 다소 완화되는 데탕트의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기도 하였으나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으로 인해 다시 긴장이 격화되었다.

동아시아에는 북한과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냉전체제의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냉전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경우 베를린의 탈취를 위해 핵 사용까지 검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한반도는 북한, 소련, 중국의 공산화 야욕이 있었음에도 미군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여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한국은 전쟁발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에 맞섰다. 전쟁 종료 후에는 북한의 재침과 공산국가 팽창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실하였다.

베트남전에 실패한 미국은 1969년 '닉슨독트린'을 발표하며 동아시아에서 공산진영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화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냉전의 중

58) 이동기. (2015).『유럽 냉전의 개요 : 탈냉전의 관점에서』. 세계정치 Vol.22. p.31

59) 이동기. (2015).『유럽 냉전의 개요 : 탈냉전의 관점에서』. 세계정치 Vol.22. pp.25-26

심지인 유럽에서 미·소 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며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9년 미·소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남북관계에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다.

2) 탈냉전기 (1990년 ~ 2008년)

탈냉전기의 미국 안보전략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구분된다. Richard N. Hass는 탈 탈 냉전론(post-post cold war theory)을 주장하며 9·11테러를 소련의 붕괴와 같은 수준으로 보며 탈냉전과 구분 짓기도 하였다.

탈냉전기 초기 소련 연방의 해체에 따라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국제질서는 급변하였다. 소련에게 승리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고 냉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명확한 적이 소멸됨에 따라 대규모의 전면전 위협보다 국지적인 저강도 분쟁위협의 증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60] 군사중심적인 안보에서 경제중심적 안보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냉전기의 전방방어와 대규모 봉쇄선 형성 개념에서 탈피하여 美 본토에 주요 전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분쟁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소련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지자 지역별 발생하는 저강도 분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개입보다 국가이익에 근거한 선택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전략에 의거 미국은 1992년 제2차 동아시아전략구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1991년 11월에 동결되었다.[61] 그러나 미국의 변화된 위협 인식은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군사안보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

60) 황정호. (2008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47-48

61) 정호정. (2004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59

〈표-11〉 탈냉전기 전·후 미국 국방비 변화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국방비 (US$B)	309.6	321.8	325.1	299.3	325	316.7	308.1	295.9	288
증가율 (%)	1.8	3.9	1	-7.9	8.5	-2.5	-2.7	-3.9	-2.6

* 출처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de, SIPRI)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테러는 미국 안보에 큰 변곡점이 되었다.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지리적 거리에 의해 제공된 미국 본토 방호의 의미가 감소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핵, 생화학 등 주요 군사기술의 발전이 위협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62] 미국은 새로운 위협의 성격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복합적이고 불확실하며 기습적이다. 둘째, 위협의 양(mass)은 감소되고 질(quality)이 높아졌다. 셋째, 비정규전 위협이 주 위협이 되었다.[63]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범세계 테러전쟁전략(Gloval War On Terrorism, GWOT)을 주 안보전략으로 택하였다. 이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조하여 불량국가(rogue states)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응하며 필요시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64]탈냉전의 흐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대공산권 외교정책인 '북방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 소련, 동유럽국가 등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 외교 정상화를 통해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65]

---

62) US, DoD. (September,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pp.3-6

63) 이창준. (2007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조정.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9-24

64) 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2). p.6

65) NAVER 지식백과 『북방외교』.[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 '22. 11. 10.)

냉전이 종료되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던 美 본토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테러의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반테러 정책은 최우선으로 채택되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미국은 불량국가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의 결합을 가장 큰 위협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 무력 개발도 이전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표-12〉에서 2001년 이후 미 국방비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표-12〉 9·11테러 전·후 미국 국방비 변화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방비 (US$B)	293.2	291	298.1	320.1	331.8	378.5	440.5	493	533.2
증가율 (%)	1.8	-0.7	2	7.3	3.6	14	16	11	8

* 출처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de, SIPRI)

3) 신냉전기 (200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은 다방면에서 경쟁을 진행해 왔다. Hal Brands와 John Lewis Gaddis는 '냉전'을 '상당기간 지속되는 국제적 경쟁관계'로 정의하고 있고[66] 2022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와 중국의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냉전의 시작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침체를 상징하는 베이징 올림픽과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본토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DF-17, DF-21 등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였고 미국은 동

66) Brands, H. and Gaddis, J. I. (2021). 『The New cold War : America, China, and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Vol. 100, No.6. pp.10-20

맹국과 우방국에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의 S-400 미사일 요격체계를 수입하였고 미군은 괌과 한국에 사드(THADD)를 배치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서도 경쟁을 이어갔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쟁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으로 이어졌고 러시아도 이에 가세하면서 경쟁을 가속하였다.[67] 미국과 경쟁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북한 또한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 분야에서도 발생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간 첨단기술과 생산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마찰을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 자본에 의해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자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였다. 중국은 '제조2025'와 같은 발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무역에서의 충돌은 금융 분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매각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서 달러 패권 붕괴를 경고하며 대응하였다.[68]

그밖에도 미국은 중국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타이베이법', '홍콩인권법'을 재정하여 중국을 압박하였고 쿼드(Quad),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반중(反中)연대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수립하였다. 2022년 2월 11일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은 핵심 이익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요구한다. 둘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동이 역량을 키워나갈 때에만 달성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주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통한 새로

67) 부형욱. (2022).『신냉전적 전략구도의 형성과 한반도 군사안보』서울 : 한국국방연구원(KIDA). pp.3-5

68) 공민석. (2021).『미중 신냉전과 한국 외교전략』논산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Vol.184. pp.2-3

운 무역을 시행한다. 넷째, 미국 영토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한다. 다섯째,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초국가적 문제들이 이야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지역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한다.[69]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러시아 등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민주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무역, 핵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범 및 표준을 만드는 등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아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조하여 이를 무시하는 국가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제도적인 정당성과 국제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70] 특히,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중(對中)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4) 한미동맹의 변화

1953년 10월 한국은 국가생존을 위해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안보 확보와 미국의 공산주의 이념 확산을 막는 전방기지 확보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조약으로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기, 탈냉전기, 신냉전기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동맹의 결속력(Cohesiveness)[71] 측면에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동맹의 결속력 평가요소는 4가지[72]로 한미 연합연습·훈련, 동맹국 군대 주둔 여부, 무기·장비 배치, 연합작전체계이다.

---

69) 민정훈. (2022).『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70) 美국방부.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준비태세, 협력관계, 네트워크화를 장려』. 번역본. pp.11-12

71) 동맹 국가들이 함께 행동하는 정도를 말하며, 결속력이 강할수록 동맹국이 군사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동맹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정하용, 2012, pp.117-118)

72) 유영환, "동맹의 결속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2, p.69

〈표-13〉 한미동맹 결속력 평가요소[73]

구 분	강한 결속력		약한 결속력
연합연습·훈련 시행	연합연습·훈련 강도증가	↔	연합연습·훈련 미실시
동맹국 군대 주둔여부	주둔 동맹군 규모증가	↔	주둔 동맹군 규모감소
무기·장비 배치	전략무기 배치	↔	전략무기 철수
연합작전체계	지휘체계 단일화	↔	지휘체계 분권화

* 출처 : 정상혁.(2015).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냉전기(1950 ~ 1980년대)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도 한국의 작전지휘권은 미군에 이양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쟁 재발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주한미군과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작하였다. 특히, 1950년대부터 배치된 전술핵은 1970년대까지 증가되었다. 당시 동맹의 결속력은 〈표-14〉와 같다.

73) 정상혁. (2015).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석사학위 논문. p.16. 연구자 일부 재작성

〈표-14〉 냉전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구 분	약한 결속력 강한 결속력
연합연습·훈련 시행	* Focus Lens연습, Team Spirit 훈련 등 시행
동맹국 군대 주둔여부	* 주한미군 배치(단계적 철수)
무기·장비 배치	* 전술핵 배치, 전략자산 배치(연합연습·훈련기간)
연합작전체계	* 작전지휘권 일원화
한미동맹 결속력	* 매우강함

탈냉전기(1990 ~ 2008년)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국가 붕괴와 함께 한반도의 미군 전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은 1991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모두 철수하였고 주한미군도 냉전기에 이어 지속 감소하였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1992년 북한의 IAEA 핵사찰을 고려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였고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약을 통해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이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에서 행사하게 되었다. 탈냉전기의 동맹 결속력 평가 결과는 〈표-15〉와 같다.

〈표-15〉 탈냉전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구 분	약한 결속력 강한 결속력
연합연습·훈련 시행	* Team Spirit 취소 / 중단
동맹국 군대 주둔여부	* 주한미군 배치(지속 감소)
무기·장비 배치	* 전술핵 철수
연합작전체계	*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맹 결속력	* 강함

신냉전기(2008년 이후)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시뮬레이션 위주로 변화하였고 북한과의 협상으로 인해 일부 한미 연합 연습·훈련이 축소 또는 유예되었고 완전히 중단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도 탈냉전기 보다 감소하였고 전술핵 철수도 변동사항 없었다. 한국은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였고 2022년 현재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해 보았을 때 신냉전기의 동맹 결속력은 〈표-16〉과 같다. 대화와 협상을 추구한 한국과 군사중심의 안보로 회기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부 상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오히려 '평화통일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받기도 하였다.

〈표-16〉 탈냉전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구 분	약한 결속력 강한 결속력
연합연습·훈련 시행	* KR/FE 유예, FE중단, 정부연습과 분리
동맹국 군대 주둔여부	* 주한미군 배치(일부 감소)
무기·장비 배치	* 전술핵 철수
연합작전체계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추진
한미동맹 결속력	* 약간 강함

시기별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국내·외 요소들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적 요소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변화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제1절에 포함하였다.

5) 국제적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미국의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적 요소를 냉전기, 탈냉전기, 신냉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안보전략, 주요 안보이슈, 한미동맹 결속력 평가요소의 변화양상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RSOI, UFG(UFL)의 규모와 기간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다.

먼저, 미국의 안보전략과 주요이슈를 살펴보면 시기별 관련 지역의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기에는 미·소 양극체제를 바탕으로 유럽이 배경이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 붕괴 후 탈냉전기에는 9·11테러와 핵·WMD 위협이

대두되면서 중동과 북한으로 배경이 이동하였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으로 시작된 신냉전기에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주요이슈의 배경이 되었다.

냉전기와 탈냉전기 기간에는 미국의 안보전략과 주요이슈의 중심이 대부분 한국과 인접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같이 한국과 인접한 지역의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약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신냉전기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본토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동맹국에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며 대응하였다. 미국은 한국에도 사드를 배치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마찰을 겪기도 하였다. 미국이 동맹국, 파트너국과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 중국도 러시아, 북한 등 반미(反美) 성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한국이 주변국을 자극하는데 부담을 주었고 그 결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에도 영향을 미쳐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하게 되었다. 〈표-17〉에 시대별 국제적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정리해 보았다.

제 2 절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요소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는 북한의 핵 위협 고조, 한국과 북한의 관계의 변화, 한·미·일 공조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미치는 영향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표-17〉 국제적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구 분		美 안보전략[74]	안보이슈	한미동맹	한미 연합연습·훈련[75]		
					규모(명)	기간(일)	비 고
냉전기	1950·60년	대소 봉쇄전략	미·소 양극체제	전술핵 배치 주한미군 배치 연합연습 시작 작전지휘권 이양	-		
	1970년대	현실적 억제전략	데탕트		4만6천~16만 (증가)	10~16 (증가)	팀스피리트
	1979년	적극적 억제전략	소련 아프가니스탄 개입		14만5천~20만 (증가)	10~90 (증가)	
	1980년대 후반		소련 개혁·개방				
탈냉전기	1990년 ~	지역방위 전략	공산국가 붕괴	전술핵 철수 주한미군 감소 팀스피리트 중단 평작권 전환	18만~12만 (감소)	90~10 (감소)	* 취소 ('92) * 중단 ('94)
			제네바 협약		4천~8천 (시뮬레이션)	6	RSOI
	2001년 ~	선택적 개입/확대	9·11테러		7만~2만 (감소)	10	UFG (UFL)
					6만~7만 (유지)	10	
신냉전기	2010년~	포괄적 개입	미·중 패권경쟁	전술핵 철수 주한미군 감소 KR/FE연기, UFG중단 전작권 전환추진	6만~8만 (유지)	10	
	2018년 ~	인도-태평양 전략			-	-	* 취소/중단 ('18)
	2019 ~2021년				시뮬레이션	10 * 20-1 미실시	CCPT (정부연습 분리)

* 본문내용 요약

74) 황정호. (2008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6

75) 정상혁. (2015). 한미 연합연습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석사학위 논문
윤안국, 안경모(2018년).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분석 :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국방정책연구』제34권

1) 북한의 고립과 핵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56년 방사화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자를 확보한 시점으로부터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1959년 핵 물질 확보를 위해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5년 IRT-2000 원자로를 도입하고 영변 핵 단지 조성을 시작하였다.[76]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6년 영변 핵시설 내 5MWe 원자로를 착공하고 1989년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핵 연료제조공장을 완공하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과 프랑스의 상업위성이 포착한 영변 핵 단지 내 시설들이 외부에 공개된 시점부터였다.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도 핵 개발을 추진해온 점에 대해 제3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전 1989년 9월 비공개 이사회에서 북한이 핵안정협정 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77]

북한이 1980년대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배경은 당시 안보환경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소련, 동구 공산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이 공산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1990년대 초에는 소련, 중국과도 수교를 맺는 등 북한의 고립화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소련의 몰락, 그리고 한국과의 수교를 맺은 중국과 소련이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유사시 북한을 얼마나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핵무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

76) 손명구. (2003). 북한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전공 석사학위 논문. p.4

77) 손명구. (2003). 북한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전공 석사학위 논문. p.4

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991년, 북한은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걸프전 직후인 1991년 4월에 주요언론들에 북한의 핵 개발이 노출되면서 또 다시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결국 1991년 12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1992년 1월 30일 핵 안정협정에 서명하면서 1993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핵사찰을 받게 되었다.[78]

그러나 핵무기에 사활을 건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3년 2월에서 3월간의 IAEA가 요구한 핵사찰을 거부하면서 그해 3월에 NPT 탈퇴 선언과 함께 핵 개발을 지속하였다. 1994년, 미국은 북미 제네바회담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를 유보시켰다. 한국도 고립된 북한의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많은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버리지 않았고 2002년 12월 영변 핵시설 가동 선언을 하였다. 2003년 1월에는 북한이 NPT 탈퇴발표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북한 핵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79]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더욱 급속도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였고, 핵탄두 위력 증대, 대량생산을 중점으로 한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후에는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CBM(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 다양한 핵 투발 수단 확보를 지속 추진하였는데, 핵실험 경과는 〈표-18〉과 같다.

78) 손명구. (2003). 북한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전공 석사학위 논문. p.5

79) 김상웅. (2018). 일본의 보통국가 전략과 한반도 안보문제 연구. 대진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p. 71

〈표-18〉 북한의 핵실험 경과[80]

구분	시 기	북한 외무성 발표내용	규 모	비 고
1차	2006. 10. 9.	“100% 우리 지혜와 기술로 핵실험 성공”	4.3	플루토늄
2차	2009. 5. 25.	“핵 억제력 강화/폭발력과 조정기술 향상”	4.7	플루토늄
3차	2013. 2. 12.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 사용, 다종화 성능과시”	5.1	고농축 우라늄
4차	2016. 1. 6.	“첫 수소탄 실험/소형화된 수소탄 위력 증명”	5.1	수소
5차	2016. 9. 9.	“핵탄두 폭발실험/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달성”	5.3	
6차	2017. 9. 3.	“수소탄 실험”	6.3	

끝내 2017년에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2018년 3회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였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22년, '핵 무력 정책 법제화'까지 공포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주요경과는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북한의 핵 개발 주요경과

1959년	북소 원자력 협정 체결
1965년	IRT-2000 원자로 도입
1986년	영변 핵시설 내 5MWe 원자로 착공

80) 「BBC NEWS 코리아」 2022. 6. 10. “북 핵실험 : '7번째 핵실험' 더 위험하다”
출처 : http://www.bbc.com/korean/news-61715052 (검색일 : 2022. 11. 11.)
이영선. (2018). 북한 핵개발 의도 변화 연구 : 북한 외무성 발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 석사학위 논문. 부록 1, 2 참고 연구자 작성

1989년	재처리시설 가동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1993년	NPT 탈퇴 선언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약(NPT 복귀)
2002년	핵 개발 시인
2003년	NPT 탈퇴 선언
2006년 ~ 2017년	1차 ~ 6차 핵실험
2017년	핵무기 및 투발수단 개발을 통한 핵무력 완성 선언
2018년	남북정상회담(3회) / 1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
2022년	핵무력 정책 법제화

* 본문내용 요약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으로 대응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전략으로서 전·평시 북한의 핵과 WMD의 사용 위협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요소까지 대응하는 것이다.[81]

81)「국방일보」2022. 8. 2. "맞춤형 억제전략"
출처 : http://www.kookbang.dema.mil.kr/newsWeb/m/20220802/2/BBSMSTR_000000100042/view.do
(검색일 : 2022. 11. 11.)

〈표-20〉 확장억제 공약과 맞춤형 억제전략[82]

1978년 7월	제11차 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최초약속
2006년 10월	제38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對韓 '확장억제 공약' 최초언급 * 북한의 제1차 핵실험('06. 10. 9.) 이후 개최
2009년 10월	제41차 SCM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수단'을 구체적 명시
2013년 10월	제45차 SCM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서명
2022년 8월	제13차 DSC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확인

그 밖에도 한미는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양국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는 '제48차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EDSCG는 한미가 확장억제 수단을 군사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외교, 정보, 경제 영역까지 확대하여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억제수단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력'[83]과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의 탄도미사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대표되는 한국의 '3축체계'이다

군사적 억제수단은 오판과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 정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했을 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군사적인 요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의 3축체계가 언제 어디서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82) 제13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 ('22. 8. 16.) 제공자료

83)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핵 능력,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전력

2) 남북관계의 변화

한국과 북한의 관계 척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회담과 북한의 도발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 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거부하였고 무력통일 외에는 어떠한 통일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국내의 반북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1960년대에는 '4.19혁명'으로 장면내각이 성립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도적 연방제를 통일의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논의된 다양한 통일방안은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고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졌다.

정권을 수립한 군부는 반공을 제일 국시로 삼아 철저한 반공정책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통일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였다. 북한도 '남조선혁명론'을 통해 연방제를 부인하고 남한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수의 무장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체제경쟁 및 군사대결 양상으로 이어져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1970년대 데탕트로 변화한 국제기류는 한국에게 자주적 안보의 필요성을 느끼게한 반면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0년 한국은 '8.15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였으며 1971년에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972년에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최초의 남북 공동 합의서인 '7.4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졌다.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제의하며 화해와 평등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며 공산권의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였다.[84]

84) 「SOY한국사」 2015. 3. 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통일 정책, 대북상황”
출처 : http://www.desert.tistory,com/m/5574 (검색일 : 2022. 11. 11.)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에 의해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에서의 의견충돌,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남침용 땅굴발견,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으로 다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전두환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 시켰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 잔류와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추동력을 더하는 서울올림픽 유치는 북한에게 부담으로 느껴졌다. 1983년 북한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로 그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미얀마로부터 국교단절을 당하는 등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으며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1984년 남한의 큰 수해를 명분으로 북한이 수해복구 지원을 제의하였고,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여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1986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문제삼아 회담을 중단[85]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공산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하였고, 남북관계 주도를 위해 자주, 평화, 민주의 3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7.7선언'을 발표하였다. 1989년에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대북 민간사업의 시초인 금강산 관광 의정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한국은 큰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빌미로 대화중단을 요구하였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북한의 협상 중단 요구 사례는 아래 〈표-21〉과 같다.

85) 이호령. (2021).『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여부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1-10. p.6

〈표-21〉 1980년대 북한의 협상중단 요구사례

구 분	중단통보일자	사 유	결 과	비 고
제2차 남북경제회담	1984. 11. 27.	판문점 무장도발 (1984. 11. 23.)	1985년 연기	'85 팀스피리트 (2. 1. ~ 4. 30.)
	1985. 1. 9.	'85 팀스피리트 강행 불만	훈련종료 후 5. 17. 재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1985. 1. 9.	'85 팀스피리트 중지 요구	훈련종료 후 5. 27. 재개	
제6차 남북경제회담	1986. 1. 20.	'86 팀스피리트 종료 후 정세판단	미재개	'86 팀스피리트 (2. 10. ~ 4. 25.)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국회회담 제8차 준비	1989. 2. 8.	'89 팀스피리트 종료 후 정세판단	1989년. 10. 25. 재개	'89 팀스피리트 (1. 27. ~ 4. 26.)

* 출처 : 윤안국, 안경모(2018년).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분석 :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990년대가 되며 공산권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었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은 '북방외교'를 추진하였고 중국, 소련과도 국교를 맺으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주체경제체제'의 모순이 불거져 나오면서 심각한 경제침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국교를 맺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도 줄어들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과의 경제격차는 북한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수용하며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였다.

한국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

진하였고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문제삼기도 하였지만 결국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성공하였다.[86]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장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군사적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방안이었다. 1991년 12월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 모두 핵무기를 금지하고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을 요구하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회할 명분을 쌓았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북한의 IAEA 핵사찰 수용을 고려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을 미실시하였으나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지연시키고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한국은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한 후에도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투명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994년 남북은 〈표-22〉와 같이 수차례 대화를 실시하였고 1994년 북한의 핵 활동 동결,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과정에서도 한미 연합연습·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포함시켰다.

〈표-22〉 1994년 남북간 대화 제의[87]

제 의	일 자	의 제	접촉형식	접촉일자
남측	5. 20.	핵 문제 및 남북현안 문제	고위급회담 대표 접촉	5. 27.
북측	5. 25.	부총리급 특사교환	차관급 실무접촉	5. 31.
남측	5. 29.	핵 문제 및 북한이 제기한 문제	고위급회담 대표 접촉	6. 5.

86) 「SOY한국사」 2015. 3. 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통일 정책, 대북상황” 출처 : http://www.desert.tistory,com/m/5574 (검색일 : 2022. 11. 11.)

87) 김기수. (2001).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책의 형성과 일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101

북측	5. 31.	특사교환	실무접촉	6. 4.
남측	6. 2.	핵 문제 및 특사교환	당국간 실무대표 접촉	6. 5.
북측	6. 4.	특사교환만 협의	실무자 접촉	6. 8.
남측	6. 7.	핵 우선·특사교환 동시논의	당국간 실무대표 접촉	6. 8.
북측	6. 8.	특사교환만 협의	실무접촉	6. 10.
남측	6. 9.	핵 문제 및 특사교환 문제	실무접촉	6. 10.
북측	6. 11.	특사교환	실무접촉	6. 15
남측	6. 12.	만나서 협의	실무접촉	6. 15
북측	6. 15.	회담 불참	무 산	-

* 출처 : 김기수. (2001).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책의 형성과 일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강경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6년 강릉지역무장공비침투사건을 일으켰고 한반도는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하였으나 햇볕정책은 지속 추진되었다.

1990년대 한국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등 교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88]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UFL, 팀스피리트 등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취소와 중단 그리고 미군철수 등 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요구를 하며 〈표-23〉과 같이 합의를 중단시켰다.

88) 「SOY한국사」 2015. 3. 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통일 정책, 대북상황" 출처 : http://www.desert.tistory,com/m/5574 (검색일 : 2022. 11. 11.)

〈표-23〉 1990년대 북한의 협상중단 요구사례

구 분	중단통보일자	사 유	결 과	비 고
남북 고위급 제7차 예비회담	1990. 2. 8.	'90 팀스피리트 기간 모든 대화 중단	1990. 7. 3. 재개	'90 팀스피리트 (1. 26. ~ 4. 25.)
남북 국회회담 제11차 준비접촉			중단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1991. 2. 18.	'91 팀스피리트 비난	1991. 10. 22. 재개	'91 팀스피리트 (1. 26. ~ 4. 2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접촉	1991. 11. 5.	'91 독수리 연습 비난	1991. 11. 11. 재개	'91 독수리 (11. 1. ~ 11. 8.)
제8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1992. 8. 7.	'92 UFL 연습 중지요구	중단	'92 UFL (8. 19. ~ 8. 30.)
남북고위급회담 통신실무자접촉	1992. 10. 28.	'92 독수리 연습 비난	중단	'92 독수리 (11. 3. ~ 11. 9.)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제10차	1992. 11. 6.	'92 독수리 연습 종료후 연기 통보	1992. 11. 18. 재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1992. 12. 19.	'93 팀스피리트 강행시 회담불가	연기	'93 팀스피리트 (1. 21. ~ 4. 20.)
	1993. 1. 29.		중단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위원장 접촉	1993. 1.256.		중단	

* 출처 : 윤안국, 안경모(2018년).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분석 :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특히, 한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로 많은 대화와 합의를 했음에도 한반도 비

핵화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이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의도는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한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였다. 완전한 단일 통일국가 달성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계를 개선을 통해 남북문제를 '해소'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기존의 '통일정책'이라는 표현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00년, 한국과 북한은 최초의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자주적 통일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 인정 및 노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류 활성화 등이었다. 정상회담 2년 뒤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 정권을 인수한 노무현 정부도 기존 햇볕정책을 계승해 나갔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햇볕정책을 추진하였고 2007년 '2차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10·4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 교류협력을 포함하였다. 2개 정부의 연속된 대북정책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등 〈표-24〉와 같이 주요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다수의 남북합의도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회담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개선된 남북관계를 유지하였다.

〈표-24〉 2000년대 주요 남북회담 진행 경과

정부	일시	회담명	주요내용	비 고
DJ 정부	'00. 6. 15.	제1차 정상회담	남북통일방안 협의	6·15 공동선언 채택
	'00. 9. 24. ~ 9. 26..	제1차 국방장관회담	군사적 긴장완화	공동보도문 채택

참여 정부	'07. 10. 4.	제2차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완화	10. 4 선언 채택
	'07. 11. 27. ~ 11. 29..	제2차 국방장관회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국방장관 합의서 채택

* 출처 : 인터넷 뉴스자료 종합

2008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先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라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햇볕정책과 달라진 한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하였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자행하였고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로서 '3대 권력 세습'이 공식화되었다. 김정은은 '핵 경제병진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등으로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아 경제는 매년 점차 나빠졌다.[89]

2013년 한국에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였고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2013년에는 3차 핵실험, 2016년에는 4·5차 핵실험을 하였고 미사일 도발은 수시로 실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지속 악화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한반도 문제를 한국과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미사일 도발 또한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표-25〉와 같이 한국과 북한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

89) 이호령. (2022).『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2-안보-1. p.3

핵화, 종전선언 등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한반도는 긴장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고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표-25〉 2010년대 주요 남북회담 진행 경과

정부	일시	회담명	주요내용	비 고
문재인 정부	'18. 4. 27.	제3차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번영	판문점 선언 발표
	'18. 5. 26.	제4차 정상회담	6·12 북미회담 협력	-
	'18. 9. 18. ~ 9. 20.	제5차 정상회담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채택

* 출처 : 인터넷 뉴스자료 종합

남북관계를 한국과 북한의 회담과 도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북관계 개선의 척도로 살펴본 한국과 북한의 회담은 1970년대 이후로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2000년에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한해에만 3회의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의 척도로 살펴본 북한의 도발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경우 3회의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었던 2018년도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 회담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연습·훈련 축소, 취소,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도 한국과 같이 관계개선이 의지가 있어야 남북관계 변화가 의미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보통국가 추진과 한미일 군사공조

1950년 6·25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과 한국·미국·일본의 자본주의 민주주의국가가 군사적 충돌을 하였다. 이후 안보환경에 따라 대립의 원인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였으나 세력 구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경제·안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러시아의 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원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공군 Su-35(Flanker-E)전투기,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공체계와 같은 첨단 장비를 구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연례 전략지휘 및 참모훈련인 보스토크 2018(VOSTOK 2018)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으며 양국은 양자 및 다자간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로 추진하는 북한제재 조치에 대해 UN안보리에서 반대하면서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왔다.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편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중·러가 상호 협력관계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90]

한국·미국·일본은 각각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과거 역사적 분쟁, 독도문제 등[91]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식민지 시대의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청산되지 않아 양국의 국민적 감정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동아시아 대륙지역에서 북한·중국·러시아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리 이격되어있는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일본과의 협력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보통국가' 추진 문제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과 함께 육·해·공군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일본 헌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일

90) 美국방부.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준비태세, 협력관계, 네트워크화를 장려』. 번역본. p.13

91) 김상웅. (2018). 일본의 보통국가 전략과 한반도 안보문제 연구. 대진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p. 129

본은 1947년, '평화헌법'을 제정하였고 제9조에 "일본은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6·25전쟁으로 후방 군수품을 조달하게 되면서 경제부흥을 일으켰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다시 일본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6·25전쟁에 주일미군을 투입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경찰예비대를 구성하였는데, 경찰예비대가 자위대의 창설 모체가 되었다.

일본은 자위대를 창설하였지만 '평화헌법'에 의해 교전권이 없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국가와는 다르다. 실제로 일본이 보통국가를 개념화한 시기는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일본은 걸프전에 무려 130억 달러라는 기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국민을 중동으로 보낸 타국들에 비해 돈으로 대신한다는 국제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보통국가화'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다.

보통국가화의 개념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교전권이 있는 나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일본은 1992년 PKO 법안을 통과[92]시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였고, 1998년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재(TMD)에 가입하였다.[93] 그리고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지원 명목으로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하였다. 2015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보법제' 정비하였고,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될 경우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94] 이밖에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맞춰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보통국가화'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회귀하는 것에 가장 민감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그 이유는 과거 한국은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로 인해 36년

92) 『연합뉴스』 2015. 5. 15.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국회심의 졸속 우려"

93) 『한국일보』 2017. 2. 28. "3·1절에 생각하는 21세기 한일관계"

94) 김상웅. (2018). 일본의 보통국가 전략과 한반도 안보문제 연구. 대진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p. 31

간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미·일 군사적 공조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시기의 안보환경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안보환경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시점과 미래에 예측되는 안보환경을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군사교류를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1994년 이후 연례 국방장관 회담 개최, 군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 한국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과 해상자위대 연습 함정의 상호방문 등으로 확대하였다.[95]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해왔다. 핵과 미사일의 특성상 일본의 정보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로 이용한다면 분명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방패에 일본 방패를 더 씌우는 것이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본의 위험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4) 동북아 및 한반도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팀스피리트, RSOI, UFG의 규모와 기간을 연대별로 도표로 정리하였다. 다음 〈표-26〉에 한미 연합연습·훈련과 연관성이 있었던 요소들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시된 요소들을 보면 국제적 요소와 달리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지만 기존 국지도발과는 대응방법이 달랐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더욱 강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였으나 북핵 문제에는 대화와 합의로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작용하였다. 먼저, 매년 실시해 왔던 대규

95) 정재정. (2005). "일본의 신 방위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p.133

모의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였고 1990년 초 소련의 붕괴는 재래식 군사위협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핵이 개발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되지 않은 핵은 당장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닌 잠재적인 위협으로 판단되었고 핵무기 개발 소요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군사적 대응 외 경제·외교 등 다른 분야를 통한 대응과 더불어 대화와 합의를 유도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였다. 그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축소시키거나 취소시켰으며 특히, 북미 회담이 진행될 때에는 회담 전후로 팀스피리트, FE와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완전히 중단되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도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척도로 삼은 회담 자체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북한과의 회담 추진 여부는 국내 정치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미 연합연습·훈련과의 연관성은 국내 정치적 요소에서 다시 정리해보겠다.

한미일 공조와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경우 연대별 주요이슈를 보았을 때 과거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동북아 지역 정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26〉 동북아 및 한반도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구 분	북핵 개발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와 일본	한미 연합연습·훈련		
				규모(명)	기간(일)	비 고
1960년대	-	반공정책	한일기본조약 체결('65)	-		
1970년대	-	7.4 남북공동성명('72)	-	4만6천~16만 (증가)	10~16 (증가)	팀스피리트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76)				
1980년대	핵개발 시작	미얀마 아웅산묘소테러('83)	-	14만5천~20만 (증가)	10~90 (증가)	
		7.7선언('88)				
1990년대	IAEA 핵사찰('12)	남북 UN동시가입('91)	일본 보통국가화('91)	18만~12만 (감소)	90~10 (감소)	
		남북기본합의서('91)	日 PKO 법안통과('92)			* 취소 ('92)
	NPT탈퇴선언('93)	강릉지역무장공비침투('96)	한일 군사교류 확대('98)			* 중단 ('94)
	NPT 복귀('94)	제1차 연평해전('99)	日 미국 TMD가입('98)	4천~8천 (시뮬레이션)	6	RSOI
2000년대	핵개발 시인('02)	1차 남북정상회담('00)	日 인도양 이지스 파견 ('01)	7만~2만 (감소)	10	UFG (UFL)
	NPT탈퇴선언('03)	제2차 연평해전('02)				
	1차 핵실험('06)	2차 남북정상회담('07)		6만~7만 (유지)	10	
	2차 핵실험('09)	-				
2010년대	3차 핵실험('13)	천안함 폭침('10)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15)	6만~8만 (유지)	10	
	4·5차 핵실험('16)	연평도 포격도('10)				
	6차 핵실험('17)	-				
	-	3~6차 남북정상회담('18)		-	-	* 취소/중단 ('18)
2019~2021	미사일 도발		한미일 공조 논쟁	시뮬레이션	10 * 20-1 미실시	CCPT (정부연습 분리)

* 본문내용 요약

제 3 절 국내적 요소

대한민국은 전범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대전 종료 후 남북이 분단되었다. 이후 6·25전쟁의 피해는 한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었으며 끝나지 않은 전쟁은 아직도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대치 속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군사정부에서 민주화정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원조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대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이러한 급격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1) 정치적 요소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반공정책을 기반으로 하였고 12년간 장기 집권과정에서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하였다. 또한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이어진 4·19혁명에 의해 하야하였다.

4·19혁명 이후 집권한 장면 내각은 경제발전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다.[96] 특히, 북진통일론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남북체제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경제발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파벌정치와 권력투쟁으로 얼룩져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1963년 실시된 대선에서 박정희는 민정당 윤보선 후보와 약 16만여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식 취임하였다.[97] 이후 1979년 10월 김재규의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기까지 18년 동안 독재를 이어갔다. 이후 등장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1993년 노태우 정부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군사정부를 유지하였다.

---

96) 장면 정부의 핵심인물 중의 하나였던 김영선은 "민주당은 경제지상의 정당이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의 최대의 목표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고 선언한다. 김영선. "민주당 복안의 골자". 『사상계』. 1960년 6월. 재인용

97) 노선희. (2011).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제적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p. 79

군사정부는 집권 정당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면 내각에서 논의되었던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뒤로 하고 다시 '반공'을 정책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당장의 비현실적인 북진정책보다는 그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남북체제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군사대결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신군부에서도 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집권 정당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98]

직선제 도입 전 군사정부는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권력의 힘을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으나 직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여론과 국민정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노태우 정부는 직선제에 의해 수립되었지만 군사정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정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당선 후 남북관계 개선노력, 공산국가들과의 정상외교 추진 등 군사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정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소수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과정이 의회, 시민단체, 여론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 행위자들의 직간접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와 개입을 거쳐 이루어졌다.[99] 특히,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3기조 3단계 통일방안'은 기존 군사정부와 다르게 여론 수렴과 국제정세를 반영한 결과물이었다.[100] 3기조 3단계 통일방안'은 그간 혼란스러웠던 한국 통일정책 방향을 '흡수통일'에서 '평화적 통일'로 변화시켰고 통일과정도

98) 김기수. (2001).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책의 형성과 일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62

99) 위의 책. p.66

100) 위의 책. pp.70-73

대화 · 협력을 통해 '화해 ·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정책이었다. 이는 이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이름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 · 발전되었다.

1998년 수립된 김대중 정부와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햇볕정책을 시행하여 북한을 지원하고 설득하여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두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 연합연습 · 훈련 비난 목적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주면 북한은 변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2008년과 2013년에 수립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앞선 두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지 않았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남북관계에 있어 무조건적인 포용은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엄격한 상호주의(비핵개방 3000)를 대북정책 기조로 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었다. 변화된 내용은 한국과 북한이 주도하여(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의 정치는 반공과 군사정부,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현재의 제6공화국이 다다를 수 있었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들은 5년의 임기간 각 정부의 성향에 따라 안보 및 외교정책을 펼쳤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 · 훈련과 연관된 대북정책 기조는 정부마다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2) 경제적 요소

한국은 2017년 구매력으로 평가한 1인당소득이 약 3만6천달라인 나라가 되었다. 이는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 1인당소득 1,700달러의 약 21배에 해당한다. 이를 계산해 보면 1962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의 1인당소득이 연평균 5.45%씩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101]

북한은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큰 1인당소득을 지녔었다.

101) 이지순. (2017).『경제발전 : 성공과 실패』. ㈜케이에스센세이션 : 대한민국 학술원. p.23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 그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북한은 2016년도 구매력기준 1인당소득은 1,634달러로 한국과의 격차가 약 20배 이상 벌어졌다. 한국은 계속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비해 북한의 경제는 동기간 내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102]

〈표-27〉 한국과 북한의 1인당소득 비교[103]

(단위 : 만원)

연도	한국	북한	연도	한국	북한	연도	한국	북한
1990년	460.5	81.1	1999년	1,223.1	83.,	2008년	2,251.4	114.3
1991년	550.8	81.8	2000년	1,341.5	83.6	2009년	2,330.2	119
1992년	623.4	79.1	2001년	1,442.8	88.6	2010년	2,556	124.2
1993년	700	77.9	2002년	1,592.8	92.4	2011년	2,684.5	133.4
1994년	817.2	79.5	2003년	1,686.7	94.4	2012년	2,772.1	137.1
1995년	947	79.1	2004년	1,818.2	101.5	2013년	2,854.8	137.9
1996년	1,052.4	78.5	2005년	1,894	105.2	2014년	2,937.7	138.8
1997년	1,147	75.7	2006년	1,987	103	2015년	3,074.4	139.3
1998년	1,117.5	78.7	2007년	2,316.4	104.1	2016년	3,198.4	146

* 출처 : 이지순. (2017).『경제발전 : 성공과 실패』

한국은 6·25전쟁 직후만 하더라도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세계적인 빈곤 국가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입장이었다.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처음에는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였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화학·철강·비철금속 중간재 산업과 기계·조선·전자의 최종재 산업 등 6개 중화학공업육성(1973-1979)이 성공하면서 제조업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104]

---

102) 이지순. (2017).『경제발전 : 성공과 실패』. ㈜케이에스센세이션 : 대한민국 학술원. pp.30-31

103) 위와 동

104) 「파이낸셜 리뷰」 2022. 8. 17. "[정인준 칼럼]한국경제발전 70년(5) : 한국경제의 위기와 기회"

한국의 경제는 1980년대 자유무역확대와 미국의 공산품 시장 개방 등 우호적인 세계무역환경에서 지속 성장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경제적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경영부실로 8개 재벌이 도산하면서 외환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3년만에 IMF 구조금융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매년 4～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대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대부터 시작하였던 남북체제경쟁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다.

3) 국내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국내 정치 및 경제의 변화와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팀스피리트, RSOI, UFG의 규모와 기간을 연대별로 도표로 정리하였다. 다음 〈표-28〉에 한미 연합연습·훈련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영향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북정책 기조가 先 대화냐 先 비핵화냐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운명이 갈렸다.

〈표-28〉 국내적 요소와 한미 연합연습·훈련

구 분	정 치	경 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규모(명)	기간(일)	비 고
1960년대	4·19 혁명('60) 5·16군사정변('61)	경제빈곤국	-		
1970년대	10·26사건('79)	중화학공업육성('73)	4만6천~16만 (증가)	10~16 (증가)	팀스피리트 * 취소 ('92) * 중단 ('94)
	12·12사태('79)	한국, 북한의 1인당 소득 역전('73)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80)	자유무역확대	14만5천~20만 (증가)	10~90 (증가)	
	6·29민주화선언('87)	1988 올림픽 유치('88)			
1990년대	문민정부 수립('93)	연평균 8.5%성장	18만~12만 (감소)	90~10 (감소)	
	햇볕정책('98)	IMF('97)	4천~8천 (시뮬레이션)	6	RSOI
2000년대	비핵개방 3000('08)	세계 7대 수출국('10)	7만~2만 (감소)	10	UFG (UFL)
			6만~7만 (유지)	10	
2010년대			6만~8만 (유지)	10	
	한반도 운전자론('17)	남북 경제격차 20배('16)	-	-	* 취소/중단 ('18)
2019~2021			시뮬레이션	10 * 20-1 미실시	CCPT (정부연습 분리)

* 본문내용 요약

경제적 측면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규모와 기간이 감소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973년 이후 북한을 역전하였고 한국의 경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후 1997년 IMF가 발생하기 전까지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남북 경제 격차를 심화시켰고 군사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한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다. 그 결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제 4 절 국내·외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관계

국제적 요소,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 국내적 요소 3가지의 각 요소별로 한미 연합연습·훈련 중 팀스피리트, RSOI, UFL(UFG)의 규모와 기간과의 관계를 정리해보았다. 각 요소들은 단독적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별로 통합하여 〈표-29〉와 같이 재정리해 보았다.

냉전기에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목적인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과 국제적 요소(미·소 양극체제),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방공정책, 남북관계 악화), 국내적 요소(군사정부, 체제경쟁) 3가지 요소 모두가 맞아 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기가 되면서 국제적 요소(공산국가 붕괴),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북핵실험[1·2차], 남북정상회담), 국내적 요소(햇볕정책, 경제 발전)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약화시켰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위협으로써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보여졌으나 공산국가의 붕괴, 한국의 햇볕정책, 경제발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이 대응책으로 대화와 합의를 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표-29〉 국내·외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국제적</th><th colspan="2">동북아 및 한반도</th><th colspan="2">국 내</th><th colspan="3">한미 연합연습·훈련</th></tr>
<tr><th>美 안보전략</th><th>안보이슈</th><th>한미동맹</th><th>북핵 개발</th><th>남북관계</th><th>정 치</th><th>경 제</th><th>규모(명)</th><th>기간(일)</th><th>비 고</th></tr>
<tr><td rowspan="4">냉전</td><td>1960년대</td><td>대소 봉쇄</td><td>양극체제</td><td rowspan="3">전술핵 배치
주한미군 배치
연합연습 시작
작전지휘권 이양</td><td>-</td><td>반공정책</td><td>4·19 혁명
5·16 군사정변</td><td>경제빈곤</td><td colspan="3">-</td></tr>
<tr><td>1970년대</td><td>현실적 억제</td><td>데탕트</td><td>-</td><td>7.4 남북공동성명</td><td>10·26사건</td><td>중화학 육성</td><td>4만6천 ~16만 (증가)</td><td>10~16 (증가)</td><td rowspan="3">팀스피리트</td></tr>
<tr><td>1980년대</td><td>적극적 억제</td><td>(신)냉전</td><td rowspan="2">핵개발 시작</td><td>판문점 도끼 만행</td><td>12·12사태</td><td>북한역전</td><td rowspan="2">14만5천 ~20만 (증가)</td><td rowspan="2">10~90 (증가)</td></tr>
<tr><td rowspan="3">탈냉전</td><td>1990년대</td><td rowspan="2">지역방위</td><td>공산국가 붕괴</td><td rowspan="3">전술핵 철수
주한미군 감소
팀스피리트 중단
평작권 전환</td><td>아웅산묘소 테러</td><td>5·18 민주화운동</td><td>자유무역</td></tr>
<tr><td>제네바 협약</td><td>7.7선언</td><td>6·29 민주화선언</td><td>1988 올림픽</td><td>18만~12만 (감소)</td><td>90~10 (감소)</td><td>* 취소 ('92)
* 중단 ('94)</td></tr>
<tr><td>2000년대</td><td>선택적 개입/확대</td><td>9·11 테러</td><td>IAEA 핵사찰
NPT탈퇴
NPT복귀
핵 개발 시인
NPT탈퇴선언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td><td>남북 UN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강릉무장공비침투
제1차 연평해전
1차 남북정상회담
제2차 연평해전
2차 남북정상회담</td><td>문민정부
햇볕정책</td><td>연평균 8.5%
IMF
세계 7대 수출국</td><td>4천~8천 (시뮬레이션)
7만~2만 (감소)
6만~8만 (유지)</td><td>6
10
10</td><td>RSOI
UFG (UFL)</td></tr>
<tr><td rowspan="3">신냉전</td><td>2010년대</td><td>포괄적 개입</td><td rowspan="2">미·중 패권경쟁</td><td rowspan="2">전술핵 철수
주한미군 감소
KR/FE연기,
FE, UFG중단
전작권 전환추진</td><td>3차 핵실험
4·5차 핵실
6차 핵실험</td><td>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td><td>상호 주의</td><td rowspan="2">남북 경제격차 20배</td><td rowspan="2">6만~8만 (유지)</td><td rowspan="2">10</td><td rowspan="2">UFG (UFL)</td></tr>
<tr><td>2018년</td><td>인도-태평양</td><td>-</td><td>3~6차 남북정상회담</td><td rowspan="2">한반도 운전자</td></tr>
<tr><td>2019~2021</td><td colspan="2">미사일 도발</td><td>시뮬레이션</td><td>10 (20-1 미실시)</td><td>CCPT (정부연습 분리)</td></tr>
</table>

신냉전기에는 탈냉전기와 같이 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적 요소(미·중 패권경쟁)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가까워지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북 핵실험[3~6차], 남북정상회담)는 북한의 핵 운용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다. 국내적 요소(비핵개발 3000, 한반도 운전자론)는 변화가 있었으나 대화와 합의의 대응책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 고도화 능력은 향상되어 위협은 증가되었으나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축소되고 취소되면서 약화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제 4 장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

제 1 절 한반도 안보환경의 전망과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 예측

1) 한반도 안보환경의 전망

앞으로의 국내·외 안보환경은 점차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이를 고려하여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영향을 미친 신냉전기의 주요 요소인 미·중 패권경쟁(국제적 요소), 북핵 문제(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요소), 국내 정치(국내적 요소)로 한정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미·중의 패권경쟁은 결판이 날 때까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권경쟁의 심화로 예상되는 변화는 첫째, 경쟁의 영역과 요소들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대륙과 해양을 통해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해 왔다면,[105] 앞으로는 경쟁의 영역이 우주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다.[106] 예를 들면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경쟁으로 이어졌듯이 이후에는 지상레이저와 같은 우주신기술 개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간 상대방 제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지지와 합법적인 당위성을 얻고자 할 것이다.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SC 우위 달성을 위한 사이버 영역에서의 충돌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 국가 간 대립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중(對中) 견제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 또한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립 국가 간의 마찰 역시 영역과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 동맹으로서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의 충돌은 동맹과 파

105) 「연합뉴스」 2022. 11. 18. “시진핑 "내년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최 고려"“

106) 「NEWSIS」 2022. 11. 18. “중국, 과학기술 초강국 꿈꾸며 공산당 상층부에 전문가 대거발탁“

트너국과 협력요소가 더 많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맹 결속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공조 강화, 연합연습·훈련을 통한 무력 현시 등이 요구될 것이며 정치·경제 측면에서도 각종 제재와 성명발표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게 되면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게 된다. 한국의 의지를 반영하기 용이해진 만큼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때 무거운 책임도 더해질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핵 사용을 억제하는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인지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2022년 현재의 북한의 핵 운용능력과 예상되는 7차 핵실험의 내용[107]을 보았을 때 핵 개발 억제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더이상 북한의 핵은 잠재적인 위협이 아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책 또한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대응책은 북한의 핵 사용 전과 후로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용 전에는 군사·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은 오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2022년 11월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설명하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108]를 한 것이 유사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사용 전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결국 사용 후의 대비만이 북핵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지는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7) 「연합뉴스」 2022. 11. 21. "ICBM 자신감 커진 북한...핵실험 가능성 높아졌나"

108) 「연합뉴스」 2022. 11. 17. "'북 정권종말' 명시 핵보고서 설명하러 美고위당국자 직접왔다"

2) 한미 연합연습·훈련 변화 예측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환경을 전망해 보았다. 미·중 패권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북핵 위협은 완성된 핵 무력으로써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국내 정치의 경우 대북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없지만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과거 미국의 안보전략이 집중하는 곳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한미동맹으로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발생될 수 있는 한·미간 의견충돌은 그 전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은 과거 소련의 붕괴로 재래식 군사위협이 감소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집중하면서 전통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완성되는 순간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대비해야 할 위협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계획과 함께 훈련 시나리오가 크게 변경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훈련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이 앞으로의 안보환경의 전망에 따른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예상되는 변화와 연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향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발전 방향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1950년대 태동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안보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 왔다. 앞으

로의 주요 안보이슈인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문제는 모두 한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안보환경의 전망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연합연습·훈련체계가 확립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안보환경은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에는 국내정치적 요소가 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는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에게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두 가지의 큰 영향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체계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따라 연합연습·훈련의 소요를 판단하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방향과 노력을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더 한다면 갑작스런 미측의 요구나 바뀐 정권의 요구에 의해 쉽게 연습·훈련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안보상황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유동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연합연습·훈련의 종류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는 다양한 영역과 요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충돌의 주체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에 있는 그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전중인 한국과 북한은 그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연습·훈련도 우주·사이버 영역 등 확장되는 영역에 대한 연합연습·훈련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환경오염, 전염병, 국제범죄 등 다양한 충돌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정부연습으로 확장되는 것도 검토된다면 한미동맹이 군사 중심의 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 현실성 있는 위협이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은 북한의 전쟁방식이 달라진다

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국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변화될 전쟁 양상에 대비하고 제3국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측은 한미 연합자산을 고려하면서 북한은 북한의 군사력만 고려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핵을 중심으로한 적의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바로 변경할 수 없다면 先 연습·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환경을 고려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4계절이 구분되는 환경으로 각 계절의 특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기를 편성한다면 미군도 환경 적응에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야외기동훈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의 지명자 시절 2021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하여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실제 훈련이 가상훈련보다 당연히 더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듯이[109] 실제로 사선을 넘나드는 전선에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기전술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상호 인지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접하고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은 서로의 능력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연합을 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필요하다.

위의 많은 것을 매년 다하기엔 오히려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 한국군의 보직주기와 미군의 순환주기를 고려하여 전반기에는 작계시행훈련을 하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위협을 고려한 상황을 상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양국의 전략과 이익,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합연습·훈련은 동맹의 결속력 평가요소로서 강하게 실시 될수록 동맹의 강화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발전 방향을 잘 이행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으로서 역할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이 매우 부담

109) 「한겨레」 2021. 5. 19.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한미동맹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 협력할 기회 늘어""

스럽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이되는 연합 연습·훈련은 한미 연합지휘소연습간 활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면 미국의 요구에도 응하고 한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절충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정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3단계 검증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검증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 통제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과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합의를 도출하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끊어지지 않도록 주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DIME[110]요소의 활용과 전략적 소통(SC)[111]가 동반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오직 자신들의 로드맵에 의해 핵 운용능력을 고도화해왔다. 그 과정에 있어 한국과 협상할 때 유일하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이다. 이는 북한의 가장 핵심가치인 체제유지에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며 SC를 통해 계속 노출된다면 정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SC를 통해 홍보하여 북한과 관련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심리전까지 가미한다면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SC를 잘 활용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제2격 능력 보유, 핵 사용 등 핵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22년

110) DIME이란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및 경제(Economics)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111) SC의 개념은 국가안보 목표 달성 위해 국력의 제요소를 동시 통합하는 것이다. 국방차원의 SC는 국방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의 인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사소통 체계와 과정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효과중심의 SC를 구현해야 한다.

NPR 발표에서 한 발언처럼 북한이 오판했을 때 그 즉시 북한의 정권의 종말이 올 수 있음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의 인식변화를 강요할 수 있다면 인지영역 활동의 일부로써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국제정세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신냉전으로 거듭 변화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의 한반도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1950년 6·25전쟁을 기점으로 국제적 관심 밖에서 인류 역사상 유엔군의 이름으로 창설된 유일한 다국적 연합군이 활약한 전장이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대한민국 안보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목적은 6·25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며, 그 목표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힘의 근간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숙달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가 간 충돌하는 영역과 요소가 점차 다양해질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은 성능 고도화에 이어 점차 완성의 단계에 있다. 이 모든 핵심 안보요소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요소 또한 정권마다 성향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위의 국내·외 정세의 향후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요소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운용능력을 숙달하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국내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과거의 전쟁연습에 국한되어 훈련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한국 단독이 아닌 미국과 연합하는 연습·훈련이다. 이 성과가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끊이지 않는 연합연습·훈련 시행은 물론이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합의점을 잘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추진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전·후에 큰 마찰 없이 안정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DIME요소의 참여와 적극적인 SC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C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전쟁지휘부들의 오판을 방지하고 민간인들에게는 현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군에 대한 신뢰를 주며 군의 위상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대부분 군사비밀, 특히, 한미 연합 군사비밀로 지정된 자료들이 많아 군사보안 문제로 자료 접근 및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둘째, 한미 연합연습·훈련, 전작권 전환, 북한 핵 위협 등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이 많아 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 반영하기 어려웠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 짓는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웠다. 셋째. 국제정세·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등은 예측하기 힘든 분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정치·군사와 연계된 민감한 사안으로 개인의 생각을 언급하는데 일부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과거 역사적 사례에 비춰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갈 길을 내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 연구에서 기대하는 바로는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변화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연합연습·훈련 확대 방안, 통일 후 연합연습·훈련의 대상과 실시방안, 국외 지역에서의 연한연습·훈련 방안 등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인선. (2017).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연구 :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부한학과 박사논문

공민석. (2021).『미중 신냉전과 한국 외교전략』논산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Vol.184.

국방부. (2001).『국방편년사(1971~75)』.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9).『국방편년사(1986~1990)』.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4).『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22).『국방교육훈련 훈령』. 서울 : 국방부

_____. (2020).『2020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_____. (1997).『구방조약집 제3집(1993~1996)』.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_____. (2006).『제38차 SCM 공동성명』. 서울 : 국방부

_____. (2014).『제46차 SCM 공동성명』. 서울 : 국방부

권안도. (2019). 한미동맹과 연합군사연습.『군사논단』. 제97권 2019년 봄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2020). 외교 · 안보와 북한.『2020 안보연구 시리즈』. 제6권 1호

김기수. (2001).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책의 형성과 일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김상웅. (2018). 일본의 보통국가 전략과 한반도 안보문제 연구. 대진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정철. (2019).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발전방안.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연구논문

김종대. (2016).『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 상지사 P&B : 가디언

남기동. (2019).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시행 발전방안 : 2018연합연습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남정옥. (2002).『한미군사관계사 : 1871~202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노선희. (2011).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제적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美국방부.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준비태세, 협력관계, 네트워크화를 장려』. 번역본

부형욱. (2021).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한국국방연구원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1-56

_____. (2017).『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2017 KR/FE의 함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66호

_____. (2022).『신냉전적 전략구도의 형성과 한반도 군사안보』서울 : 한국국방연구원(KIDA).

손명구. (2003). 북한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전공 석사학위 논문

신종태. (2016). 미국의 베트남전쟁 평가 및 교훈.『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제10권 제2호 통권 14호 pp.73-103

유영환. (2012). 동맹의 결속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윤안국, 안경모(2018년).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분석 :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국방정책연구』제34권

윤안국, 장영호, 이민우, 오태호. (2021).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발전방향.『겨울』. 37-4 통권 134호 pp. 71-107

윤정원. (2008).『한미동맹의 분석 : 지속과 변화』. 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이기범. (2019).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ISSUE BTIEF』. 2019-20호

이동기. (2015).『유럽 냉전의 개요 : 탈냉전의 관점에서』. 세계정치 Vol.22
이병진. (2021).『초강대국 미제국주의 단일 패권과 중동정책의 모순』. 통일시대연구원. 2021. 12. 29 칼럼
이영선. (2018). 북한 핵개발 의도 변화 연구 : 북한 외무성 발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 석사학위 논문
이정혁. (1989).『팀스피리트와 미국의 군사전략』. 서울 : 동녘
이지순. (2017).『경제발전 : 성공과 실패』. ㈜케이에스센세이션 : 대한민국학술원
이창준. (2007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조정.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호령. (2021).『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여부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1-10
_____. (2022).『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2-안보-1
장삼열 외 3명. (2013).『한미동맹 60년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기념관. (2020).『6 · 25전쟁을 아십니까?』. 서울 : 전쟁기념관
정상혁. (2015). 한미 연합연습의 강도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석사학위 논문
정인준. (2022).『[정인준 칼럼]한국경제발전 70년(5) : 한국경제의 위기와 기회』 파이낸셜 리뷰. 2022. 8. 17. 칼럼
정하용. (2012). 단극 체계와 동맹정치.『국가전략』. 제18권 2호. 성남 : 세종연구소 pp. 107-131
정호정. (2004).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성훈. (2008).『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광승. (2019). 박정희 유신체제와 헤게모니 권위주의 정당성 : 성역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한국정치정공 박사학위 논문

통일교육원. (2010).『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서울 : 현대사회문화연구소. 통권 330호

한미연합군사령부. (2020).『연합/합동작전 용어집(제1권)』. 국군인쇄창 : 한미연합군사령부

_____. (2020).『연합/합동작전 용어집(제2권)』. 국군인쇄창 : 한미연합군사령부

_____. (2022).『연합연습 명칭 변경 (공지)』. 서울 : 한미연합군사령부

_____. (2022).『CMST 명칭 변경 (공지)』. 서울 : 한미연합군사령부

한유동. (2012). 이승만 정부의 '반공' 국민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 이념적 동질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합동참모대학. (2019).『합동 및 연합작전 : 합동 및 연합작전 관련 주요 용어 및 개념(III)』. 서울 : 합동참모대학

합동참모본부. (2022).『연합 및 합동연습 · 훈련 규정』. 서울 : 합동참모본부

_____. (2020).『합동 · 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_____. 한미연합군사령부. (1979).『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서울 :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_____. 한미연합군사령부. (1994).『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수정』. 서울 :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황정호. (2008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후데우쉬 카타지나 에바. (2020). 정치체제의 민주화 과정에 나타난 사회운동의 역할 : 80년대 한국과 폴란드 사례 비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Alliance. Carlisle, PA : Strategic Studies Institue p.97 재인용

Brands, H. and Gaddis, J. I. (2021). 『The New cold War : America, China, and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Vol. 100, No.6

Jeongwon Yoon. (2003). Alliance Activities : Meetings, Exercise, and CFC's Roles. Recalibrating the U.S.-Republic of Korea

Oberdofer. (2001). The Two Koreas :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 Basic Books pp.84.-149. 재인용

US, DoD. (September,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USJCS. (2017). JP-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 of US

ABSTRACT

A Study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 Peninsula and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Park, Jeung-Hyun

Major in Security Policy

Dept. of Security Policy

Graduate School of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environments(International factors,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domestic factors). The key content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How should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develop when looking at the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environment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is thesis summarizes the changes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from the Korean War in 1953 to 2021.

This thesis viewed international element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elements aroun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domestic factors as factors influencing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In addition, by deriving the main factors for each element for each regimen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ale of the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and the period change was examined.

International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when the area where major issues occurred was adjacent to the Korean Peninsula. Otherwise, it had an indirect effect. Most of the elements aroun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domestic factors directly affected it.

When looking at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 international factor,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 element aroun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force South Korea into a dilemma.

In the past, even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forced South Korea into a dilemma. At that time, South Korea chose to talk to North Korea while weakening the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In this dilemma, I presented my opinion on what kind of choice Korea makes is a profitable decision.

In conclusion, with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U.S., an ally, and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ROK-US combined exercise · training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Finally, this study had many restrictions on military security and political issues. And it was difficult to reflect the ongoing problems in real time. Still,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so that the Korea-U.S. joint exercise can develop in a direction t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interest.

【Key words】 combined exercise, combined training, security environment